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조선족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만 3세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 전공
郭 美 言

중국 조선족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만 3세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최나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 전공
郭 美 言

郭美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박 승재 (인)
부위원장 박 유 정 (인)
위 원 최 나 야 (인)

국문초록

중국은 한족 중심의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전형적인 다문화 국가이다. 민족별로 고유문화의 전통과 개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민족·언어·종교 및 생산방식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공고화해 왔다. 본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중 조선족 가정이 유아가 한국어와 중국어를 습득하는 동시적 이중언어 언어환경으로서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유아가 접하는 동시적 이중언어 환경의 양상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세밀하게 분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와 지린성 매하구시에서 조선족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현어휘 관찰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관교육의 영향이 적은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목록을 한국어, 중국어, 이중언어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둘째, 조선족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조선족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넷째,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들의 표현어휘력은 두 언어 간에 차이가 있어 한국어보다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언어에 대해 모두 실제 월령보다 등가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검사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하면, 유아들은 중국어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 한국어-중국어 단어 표현가능성이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에서 부모가 중국어를 더 많이 쓸수록 이중언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은 높고,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은 낮았다. 가정

문해활동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과만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조선족 부모는 가정에서 중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고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부모 간에 언어사용의 상관이 높아, 각각 한 언어씩 나눠서 쓰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가정 내 이중언어사용 유형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높은 관련을 가져, 어머니가 중국어를 주로 쓰는 경우보다 한국어를 주로 쓰는 가정에서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국어를 주로 쓰거나 적어도 두 언어를 고르게 쓰는 경우, 한국어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더 높았다.

넷째, 가정문해활동이 유아의 이중언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가정에서 문해자료를 많이 구비하고 있을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높아졌다. 문해활동 빈도, 문해자료 구비정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의 순으로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중언어 관한 연구가 주로 북미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만 3세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는 동시적 이중언어 환경에서 부모를 통한 두 언어 노출 정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문해환경의 다양한 요소가 어휘 측면에서 이중언어 발달과 관련됨을 보여줌으로써,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유아의 가정환경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가정 내 문해환경을 구성하는 변수인 가정 내 문해자료, 문해활동, 부모의 문해활동 지도를 조사하면서 이중언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에

대해 한국어와 중국어 관련 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한다면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조선족 가정, 표현어휘력, 동시적 이중언어,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 가정문해환경
학번: 2017-23539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문제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이중언어 유아의 어휘 발달 ····· 8
1) 조선족 가정과 동시적 이중언어 ····· 8
2) 이중언어와 어휘발달 이론 ····· 11
3) 이중언어 유아의 어휘력 ····· 14
2. 부모의 언어사용과 유아의 어휘력 ····· 18
3. 가정문해환경과 유아의 어휘력 ····· 21

Ⅲ. 연구 방법 ····· 25
1. 연구 대상 ····· 25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5
2) 연구 대상 가구의 문해환경 특성 ····· 28
2. 연구 도구 ····· 30
1)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 ····· 31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 32
3) 가정문해환경 ····· 33
3. 연구 절차 ····· 34
4. 자료 분석 ····· 35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37
1.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및 등가연령 ····· 37
1) 유아의 이중언어 표현어휘력 원점수 및 등가연령 ····· 37
2) 유아의 이중언어 어휘 목록 비교 ····· 39
2. 부모 이중언어사용, 가정문해환경, 유아 표현어휘력 간의 상관 관계 ····· 42
3. 부모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표현어휘력 ····· 45
1) 부모 이중언어사용 유형 ····· 45
2) 부모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 47
3) 부모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 48
4) 부모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 49
5) 부모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 50
4. 조선족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 51
1)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 51
2)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 52

Ⅴ. 결론 및 논의 ····· 55

참고문헌 ····· 62
부록 ····· 71
Abstract ····· 92

표 목 차

〈표 Ⅲ-1〉 연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 ····· 27
〈표 Ⅲ-2〉 연구 대상 가구의 문해환경 특성 분석결과 ····· 29
〈표 Ⅲ-3〉 목표 어휘 품사별 질문형태 ····· 32
〈표 Ⅲ-4〉 신뢰성 검증 분석결과 ····· 34
〈표 Ⅳ-1〉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원점수 비교 결과 ····· 37
〈표 Ⅳ-2〉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분석결과 ····· 38
〈표 Ⅳ-3〉 유아의 이중언어 어휘목록 비교결과 ····· 40
〈표 Ⅳ-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44
〈표 Ⅳ-5〉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 ····· 45
〈표 Ⅳ-6〉 부모 간 이중언어사용 유형의 조합 ····· 46
〈표 Ⅳ-7〉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 47
〈표 Ⅳ-8〉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49
〈표 Ⅳ-9〉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50
〈표 Ⅳ-10〉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51
〈표 Ⅳ-11〉 가정문해환경이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52
〈표 Ⅳ-12〉 가정문해환경이 유아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53

그 림 목 차

〈그림 Ⅳ-1〉 조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 39

부 록 목 차

〈부록 1〉 부모용 질문지(한국어) ····· 72
〈부록 2〉 부모용 질문지(중국어) ····· 79
〈부록 3〉 한-중 이중언어 유아용 표현어휘력 검사지 ····· 84
〈부록 4〉 연구 대상 유아 한국어-중국어 인지 분포 ····· 89

Ⅰ. 서론

1. 문제 제기

유아의 출생부터 가장 최초로 만나는 환경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가정이다. 또한 가정은 다양한 경험을 대부분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다양한 물적·인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수진, 2009; 명현옥, 2001; 조호순, 2005). 특히, 가정 내에 유아를 위한 다양한 읽기·쓰기 자료들이 있고 유아가 부모와 함께 책 읽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 유아의 언어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Morrow, 1983; Voss, 1993).

1980년대 이전의 많은 학자들은 유아기를 읽기와 쓰기를 위한 준비시기(readiness)로 명명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김영실 1991; Mason, 1986; Teale & Sulzby, 1986). 그러나 1980년대 언어사용환경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유아들의 언어발달이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포함한 주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이문정, 1992).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언어 환경과 주변의 관련 사람들과 상호작용은 유아기의 언어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정 내의 언어 환경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 내에서 최초의 언어적 관계를 맺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모국어 습득 환경과 사용언어 및 의사소통 유형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김이선, 1991; 박현선 등, 2012; Erika, 2001). 그중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과 어휘의 양, 지시하기, 질문하기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사용한 발화의 길이와 단어의 수가 자녀의 어휘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희, 2004; Heike, 2006). Huttenlocher 등(1991)은

유아의 어휘 크기가 어머니가 유아에게 말하는 단어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 유아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는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Barrett, Harris & Chasin, 1992). 또한 부모의 언어입력은 단일언어 아동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이중언어 아동의 경우 대화자, 장소, 상황에 따라 입력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Dehouse, 1995년). 즉, 부모의 언어입력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55개의 소수민족 중에 53개의 민족이 자신만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의 뛰어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교육의 질을 드높이기 위해 중국은 특별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로 소수민족 지역의 '이중언어(Bilanguage) 교육제도'다. 이 제도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 학교에서 각자의 민족 언어와 한어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다[1].

신중국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육을 중시했으며 다양한 정책과 법규를 제작하며 소수민족 지역 이중언어 교육의 발전과 개선을 쉼 없이 추진해왔다. 2002년 10월, 연변주위원회와 연변주정부는 〈조선족교육혁신과 발전에 관한 여러 의견〉을 통해 '개혁심화 및 조선족교육수준 제고', '이중언어 교육 중심 개혁 속의 새로운 돌파구', '적극적인 이중언어 교육혁신, 조선족학교 교재 및 강의언어 속 이중언어화의 단계별 실현', '조선어의 정밀화, 한어의 강화, 외국어 최적화' 등의 내용을 공동 발표했다.

현재 중국 조선족 인구는 약 200만 명이며, 대부분 연변조선족 자치주, 장백조선족 자치주, 동북삼성 및 내몽골자치주 소속의 조선족자치향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으론 지역별로 흩어져 살거나 한족과 더불어 사는 경우가 많아 지정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조선어는 주류언어인 한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줄곧 한어의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제도는 현시대에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

1) 국무원 '개혁 심화와 민족 교육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은 소수민족의 이중 언어 교육 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교사의 양성과 훈련을 강화함.

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曹秀玲; 鄭晶, 2008).

1996년부터 조선족 인구 정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조선족 인구수는 74만이다. 하지만 2011년 조선족 인구수는 80만이었다. 즉 조선족 인구수는 1년에 1만 명의 속도로 유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선족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2016년 연변 인민대표의 조선족 교육현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연변주 20여 개 조선족 학교의 재학생은 25명 미달, 10개의 학교는 재학생이 6명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래한 원인은 조선족 학교의 학생들이 한족 학교로 가기 때문이다(張京花; 李英浩, 2017).

조선족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면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생각하여 모국어 지위가 안정적이다. 하지만 조선족 청년층의 모국어에 대한 태도는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의 한어(중국어)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족언어인 모국어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년, 중년, 청년 3대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층층이 늘어나는 계단형으로 분포되었다(孫瑩, 2018).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어린 아동의 경우 청년층 부모의 영향과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은 다양한 학교 환경과 가정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귀옥 외, 2003).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비율, 언어의 노출 시기,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 등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 추세로 이중언어 경험이 아동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어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체될 수는 있으나, 일단 두 언어를 습득하고 나면 지적능력이 앞선다는 주장이다. 이중언어 아동들은 추상적 개념들을 일찍 간파하고, 오도된 정보들을 무시하는 학습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는 이중언어 아동들의 인지적 이점과 관련이 있으며(Bialystok, 2005; Kovács & Mehler, 2009b) 향후 심리사회적으로나 학업적인 이득을 얻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T'seng & Fuligini, 2000; Woong Fillmore, 1996) 밝히고 있다. 이중언어 아동들은 한 사물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므로 사물의 이름이 임의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므로, 단어와 의미 사이의 상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lanco-Worall, 1972 : Vygotsky 1962).

본 연구에서 살펴볼 이중언어(bilingual or dual language)는 2개 이상의 언어환경에 노출되어 언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두 번째 언어(L2)에 노출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유아기 때부터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을 '동시적'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s)라 하고, 모국어(L1)가 습득된 이후에 제 2언어(L2)를 배우는 것을 '순차적' 이중언어(sequencial bilinguals)와 구분되며 조선족 가정 유아들의 경우 대부분 '동시적' 이중언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Pradis, Genesee, & Crago, 2012). 다만,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수준이 저조한 조선족 가정의 유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부터 부모의 언어사용이 '동시적' 이중언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환경은 유아들의 언어발달 성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조선족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유아의 어휘력 향상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金英枚, 2017), 본 연구자는 조선족 가정 내에서 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고찰해 보고 유효한 변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어휘력은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 나누어진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수용어휘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낱말로 만들어 내는 표현어휘는 서로 독립된 능력은 아니지만 차별화되는 발달을 보인다. 영유아기의 어휘 발달을 살펴보면, 수용어휘의

발달이 더 먼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이미화, 2004). 수용어휘는 첫 단어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발달되기 시작하며 표현어휘는 생후 12개월 무렵에 처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생후 12개월에 첫 낱말을 산출하기 시작하여 생후 20개월 무렵이 되면 수용어휘는 300여개, 표현어휘는 약 50～100여개 이상에 이르게 되며, 만 3～4세경에는 수용어휘는 약 20,000개, 표현어휘는 약 13,000개까지 습득하게 된다 (김영태, 2002). 이중언어 아동은 하나의 언어를 구사할 때 다른 언어의 간섭을 억제(inhibition)하고, 대화 상대자 또는 상황적 문맥에 따라 두 언어를 자유롭게 전환(code-switching)해야 하므로 이중언어 아동의 상위인지능력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Bialystok, 2001).

Qian(2002)은 어휘지식을 4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이것은 어휘지식의 양, 어휘 지식의 깊이, 어휘지식의 구성, 수용적-표현적 어휘지식의 자동화로 구성된다. 이렇듯 어휘지식이란 단순히 한 단어에 대응되는 한 가지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ara(2005)의 어휘능숙도에는 어휘지식의 양적 측면, 어휘지식 간의 연결망을 뜻하는 구성적 측면, 수용적 어휘지식을 표현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어휘 접근성(accessibility)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elka(1997)는 수용적 어휘지식의 92%가 표현적 어휘지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용적 어휘지식이 반복과 훈련을 통해 표현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어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나이나 성별 등의 내적인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형제자매의 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표현어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2008; 김영란, 2011; 오소정 외 2009 ; 성미영 외, 2010; 황혜정, 2011). 이중언어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이 단일언어 아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나(Choi & Hwang, 2009; Hwang, 2010; Jeong, 2004; Kim, 2011), 이러한 어휘

력 발달상의 차이는 이중언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었다(Geneesee, Nicoladis &Paradise, 1995; Genesee, Paradise & Cargo, 2004). 특히 그 차이가 4~6세를 전후로 하여 점진적으로 사라진다는 보고가 이루어졌다(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 2009; 유승애・이지현, 2009). 한편, 이중언어 아동이 두 언어의 어휘를 각각 인지하는 정도를 따져보면, 단일언어 아동의 어휘력에 못지않다는 분석도 있다(King & Fogle, 200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와 지린성 매하구시의 조선족 가정의 유아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성장한다. 이것은 가정 부모로부터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접하는 동시적 이중언어의 영향력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세밀하게 분석,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투먼시와 지린성 매하구시에서 조선족 가정의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특성과 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3.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조선족 가정문해환경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이중언어 유아의 어휘 발달

1) 조선족 가정과 동시적 이중언어

이중언어(bilingual or dual language)발달에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언어를 접하는 시기에 따라 생후에 모국어(mother tongue, L1)를 습득한 이후에 제 2 언어(L2)를 습득하게 되는 순차적 이중언어(sequencial bilingual)와 출생 후부터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하게 되는 동시적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로 나눌 수 있다. Lambert(1977)는 위와 같이 두 언어에 노출되는 시점에 따라 이중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순차적 이중언어(sequential bilinguals)란 3세 이후 모어가 어느 정도 확립된 다음에 제 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이며, 동시적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s)는 출생 후 3세 이전에 모어와 제 2언어가 가정에서 함께 노출되는 경우이다.

두 언어가 가진 언어적 지위와 언어능력과 관련지어 감가적 이중언어(subtractive bilingual environment)와 부가적 이중언어(additive bilingual environment)로 구분한다(Lambert, 1977). 부가적 이중언어는 모어 또는 제 2언어의 능력감소 없이 두 언어가 함께 발달되어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하며, 감가적 이중언어는 모어 또는 제 2언어를 습득하면서 다른 하나의 언어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감가적 이중언어환경에서 두 언어 중 가정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소수언어는 언어능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Fillmore, 1991).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지역사회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감가적 이중언어 환경에 처

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환경에서 자녀를 이중언어사용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언어입력 제공자로서 노력이 필요하다(De Houwer, 2007).

Genesee, Paradis, & Crago(2004)는 이중언어자를 언어 노출 시기나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언어사용 등에 따라 그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며, 과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

와의 의사소통 결여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 언어를 혼동하여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며,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의 정책과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는 이주자의 모국어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두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문화적으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기초 언어처리 능력과 인지적 능력까지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족 중심의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전형적인 다문화 국가이다. 민족별로 고유문화의 전통과 개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민족·언어·종교 및 생산방식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공고화시켜왔다. 이로써 상호의존성이 높지만 각자의 개성은 잊지 않은 '중화민족다원일체구도[2)]'를 형성할 수 있었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소수민족 교육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민족 지역의 기본 교육 지침으로서 소수민족 거주지 중에서도 고유의 민족 언어와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언어와 한어 교육을 병행하는데 방점을 둔다(申英美, 2006).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서 조선족[3)]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며

---

2) '중화민족다원일체구'는 1998년 홍콩중문대학 학술강연에서 Fei Xiaotong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다원'은 중국 56개 민족의 고유 문화로 중국 전역의 문화 다원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며 '문화의 다원화'로도 칭할 수 있음. '일체'란, 각 소수민족의 '다원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뜻하며 56개 민족이 다양성으로 '중화민족 대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중심에는 국가가 통일하고 있는 형태임.

3) '조선족'은 '신 중국(新中國)'을 건국한 후, 자국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분류함에 있어서, 한국인이 최근에 들어서 '재중 동포'라고도 지칭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민족/한

인구 1만 명당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 중의 하나이다. 조선족은 개인과 사회가 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수평적 이중언어(Horizontal bilingualism) 체계에 속해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행복한 이중언어 생활을 누리고 민족어와 민족 문화를 지키고 있는 이상적인 이중문화-이중언어(Bicultural-bilingual) 환경인데 이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다(박영순, 1990). 조선족 거주지역에서는 한국어가 제1 언어 및 제2 언어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기에 21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이중언어발달, 학습,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생태 실험실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은 다양한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언어 발달에 연령, 인지능력과 같은 개인 요인 다음으로 부모의 언어사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귀옥 외, 2003).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비율, 언어의 노출시기,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 등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 추세로 이중언어 경험이 아동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어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체될 수는 있으나, 일단 두 언어를 습득하고 나면 지적능력이 앞선다는 주장이다. 이중언어 아동들은 추상적 개념들을 일찍 간파하고, 오도된 정보들을 무시하는 학습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귀옥 외(2003)는 이중언어 발달에 연령, 인지능력과 같은 개인 요인 다음으로 부모의 언어사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캐나다 거주 일본인 아동을 조사한 요네다(米田, 2004)도 이중언어 습득은 체재기간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 언어환경이 크게 관련되고 특히 독서의 질과 양, 언어사용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일본의 이주가정에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일본

(韓)민족에게 부여한 명칭임.

어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친구관계나 일본어 학습의욕보다 가정에서의 일본어 사용 빈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여 가정의 언어환경에 따라 이중언어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李美靜, 2006).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환경과 달리 두 언어를 동시 습득하는 환경이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ialystok, 2001; Bialystok, 2011; Hermanto & Bialystok, 2012). 이중언어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발달 및 상위언어능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이중언어 아동은 하나의 언어를 구사할 때 다른 언어의 간섭을 억제(inhibition)하고, 대화 상대자 또는 상황적 문맥에 따라 두 언어를 자유롭게 전환(code-switching)해야 하므로 이중언어 아동의 상위인지능력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Bialystok, 2001). 한편 이중언어 환경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Edwards & Christophersen, 1998), 오히려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을 저해한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Bialystock, 1988; Nicoladis, 1997).

이처럼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습득은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분산됨에 따라, 단일언어 아동의 언어습득과 비교하여 더 큰 변동성(variability)을 보인다(Kan & Kohnert, 2005; Kohnert, Windsor, & Ebert, 2009; Peña, Bedore, & Zlatic-Giunta, 2002). 이들은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과는 다른 언어발달적 특징, 즉 언어전환(code switching), 혼용(mixing), 언어손실(language loss), 언어간섭(interference), 중간언어(interlanguage) 등을 경험하게 된다(Hong & Yim, 2014).

2) 이중언어와 어휘발달 이론

이중언어(bilingualism)의 정의는 분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구사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연속선 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또한, 이중언어를 정의 시 언어능숙도 뿐만 아니라 언어습득 순서, 사회 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언어학적 기준은 유창성 정도에 따라 이중언어 아동을 분류하는 경우이다. 언어학적 기준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에서 각기 다른 언어사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세분된 분류가 가능하다(Diehold, 2000). 이처럼 이중언어의 범위는 두 가지 언어 모두를 모국어 수준과 가깝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론(Maximalist theory)에서부터 모국어와 제2 언어 모두 최소한의 수동적인 능력을 지닌 수준의 최소론(Minimalist theory)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회·문화적 기준은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사용 능력은 언제, 어떠한 언어환경에서 두 가지 언어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언어습득 배경을 기준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이중언어 아동의 이중언어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중언어 아동들은 언어습득 배경을 기준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과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로 이주해 가게 되어 새로운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는 순차적 이중언어 아동으로 구분된다(Appel& Muysken,1987).

이중언어사용 능력에 따라 균형된 이중언어사용자(balanced bilingual)와 한 언어가 우세한 이중언어사용자(dominant bilingual)로도 구분할 수 있다(Lambert,1955). 균형된 이중언어사용자는 두 언어의 사용능력이 고른 사람이며, 한 가지 언어의 능력이 우세한 이중언어사용자는 모국어 혹은 제2 언어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능력이 우수하다.

이중언어를 동시에 습득하여 두 언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주장(Colins, 2006)과 두 언어의 동시 입력이 혼란을 야기하여 언어발달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Bhadia & Ritchie, 1999)이 엇갈린다. 기 언어발달 과정에서는 이중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늦은 언어발달(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황혜신, 황혜정, 2000)을 보이는 반면, 5, 6세가 되면 단일언어 아동들과 유사한 언어 수행력을 갖게(이귀옥

등, 2003 ; 이귀옥, 이혜련, 2008)는 견해도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중언어 유아들의 어휘발달 상황에 대한 한국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표준화된 검사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놀이, 이야기 과제를 통한 자발화 표집, 이름 대기 검사 등을 통한 비공식적 검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측정이 하나의 검사도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 영태외, 2009)가 발간되기 전에 시행된 선행연구들은 수용 어휘력 측정을 위해서 대부분 그림 어휘력 검사(PPVT-R,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Revised, 김영태외, 1995)를 사용하였으며, 표현어휘력 측정에는 각 연구마다 다른 검사도구들을 적용하였다.

한편, 어휘 발달은 언어의 한 영역으로서 언어능력의 전체적 지표는 될 수 없지만 의미론적 발달을 비롯한 초기 언어발달의 토대가 된다(김영란, 2011). 언어학습에서 기본적인 어휘 학습은 학업성취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기에 초기 어휘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휘발달의 집중 시기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본적인 '어휘'의 정의에 대해 자립적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로서 일정한 범위에 사용되는 단어의 총체라는 연구(이연섭, 2000)와 개인이 습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별 어휘의 양과 그 의미와 용법을 이지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어휘력이라고 정의한 연구(이차숙, 2004)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Carlisle 외(2000)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문맥 속에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휘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어휘발달 과정은 모국어로서 단어를 습득하고 단어를 자신의 어휘집 속에 구조화해 나가는 과정이며(Erica Hoff, 2011) 유아기의 초기 어휘발달 과정은 모방과 반복, 연습과 창의적인 혼합에 의해서 형성된다(Brown, 1986; 윤영은, 2010 재인용). 이후에 유아는 특정 맥락에 기반을 두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서 최초에 맥락 의존적이었던 단어는 점진적으로 맥락에서 벗어나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Erica

Hoff, 2011).

여기에는 다문화가정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언어습득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모국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은 이중언어사용을 위한 언어습득 환경의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이중언어 유아의 어휘력

아동은 일반적으로 생후 5개월부터 일정 단어를 파악하고 생후 10개월 경부터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생후 12개월에 첫 단어를 말하고, 대개 생후 18개월 된 영아는 50개 어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Nelson, 1973).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아들은 20~21개월 사이에 100개 어휘를 습득하며 23~24개월 사이에는 어휘폭발(vocabulary burst)이 일어나서 하루에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장유경, 2004).

3세부터 영아는 1,000여 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서너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고 완전한 문장체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4세 또는 5세가 되면 1,500~2,000여 개의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너다섯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5~6세가 되면 2,000~2,500개의 단어를 습득하고 6~7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이승복, 2003).

일반적으로 생후 5개월부터 영아는 일정 단어를 파악하고 생후 10개월 경부터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생후 12개월에 첫 단어를 말하고, 대개 생후 18개월 된 영아는 50개 어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Nelson, 1973).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아들은 20~21개월 사이에 100개 어휘를 습득하며 23~24개월 사이에는 어휘폭발(vocabulary burst)이 일어나서 하루에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장유경, 2004).

3세부터 영아는 1,000여 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서너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고 완전한 문장체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4세 또는 5세가 되면 1,500~2,000여 개의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네다섯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5~6세가 되면 2,000~2,500개의 단어를 습득하고 6~7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이승복, 2003).

또한, Chomsky(1959)는 인간은 생득적으로 언어능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적정 시기에 적정 언어환경에 있다면 어떤 언어라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생 직후의 신생아는 울음소리와 같은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6개월이 되면 옹알이를 하고, 12개월경 한 단어 발화(일어문)을 시작한다. 유아가 18개월이 되면 두 단어가 결합된 발화(이어문)를 시작하며, 만 3세에서 4세에 이르러 모국어의 기본 문법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끊임없이 말소리를 지각하고 음운과 어휘 표상을 정교하게 발달시켜나간다. 선험론적 입장에서는 개별 언어의 어휘와 문법이 모두 다른 언어일지라도 명시적인 학습 방법 없이 비슷한 진전을 거쳐 언어를 완습해내는 원인을 UG(보편문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언어능력의 창의성과 심리 작용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의 어휘력은 언어의 능숙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Nation, 2010)이며, 유아의 어휘발달 속도와 습득 어휘의 종류는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하다(Gentner, 1982). Gentner가 구체화한 어휘발달 모델에 의하면 유아가 10개 미만의 어휘를 산출하는 초기 어휘 발달 단계(Routines & word games)에서는 품사의 구별이 어려우나, 표현어휘가 50개에서 200개가 되는 참조 단계(Reference)에서는 어휘의 대부분이 명사류이며, 동사와 형용사는 적게 출현한다. 유아가 100개의 표현어휘를 획득하면 동사와 형용사의 습득 비율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어휘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단계(Predictation)에 진입하게 되고, 300에서 500개의 어휘가 습득되면 문법 단계(Grammar)에 이르러 문법적 기능어가 출현한다. 이는 한국인 유아를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월령 집단으로 범주화한 후 어휘발달을 살펴본 연구(장유경, 2004)에서 유아가 50개의 단어를 습득하기 전에는 두 단어가 조합되지 않지만, 50개 이후부터 200개 단어

를 습득하기까지 두 단어의 조합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점차 강화된다는 유아의 발달 시기별 표현어휘 증가 결과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유아기는 문법적인 지식과 더불어 어휘 발달 구문 발달을 포함하는 언어발달의 가장 결정적 인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어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중언어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첫 낱말, 혹은 최소 50개 낱말 산출, 두 낱말 연결 발화의 첫 산출과 같은 언어발달에서의 기본적인 이정표들에 있어서 이중언어 아동과 또래의 단일언어 아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Petitto et al., 2001; Petitto & Kovelman, 2003). 이러한 연구들 중 이중언어 아동들의 어휘력을 살펴본 최근 연구들(Bialystok & Feng, 2011; Bualystok et al., 2010; Marchman et al., 2010; Vagh et al., 2009)은 이중언어 아동의 영어 어휘 수가 동일한 생활 연령의 단일언어 아동에 비하여 적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습득이 입력에 근거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중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각각의 언어에 노출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Gathercole & Hoff, 2007; Oller & Eilers, 2002).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King & Fogle, 2006 ; Kovács & Mehler, 2009a; Pearson et al., 1993)은 이중언어 아동과 단일언어 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중언어 표현어휘 발달연구에서, 황상심(2010)이 10개월에서 36개월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 평가 (M-B CDI-K, 배소영 외, 2006)」로 초기 표현어휘 발달을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 수는 선행 연구의 유아들에 비해 더 적게 산출되었고, 25개월 이후 어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연령 집단 간 평균 어휘 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이 두 가지 언어사용의 이점뿐만 아니라 아동의 상위언어능력을 비롯한 상위인지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Bialystok, 1999)이 있다.

또한 이중언어사용 아동들이 학령기에 이르면 제 1언어와 제 2언어 사이의 언어능력 차이가 좁혀지는데 특히, 기초인지력이 주로 작용하는 언어영역인 낱말해독, 이야기능력 등에서는 언어발달의 차이가 적은 반면 언어의 고유 특성이 작용하는 어휘 및 발음, 문법 등에서는 단일 언어사용 아동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Paradis & Schneider, 2008, 김영태, 2014). 그러나 이중언어사용 아동은 한 언어에서 모르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이들이 이해하는 전체 어휘의 수는 각 언어에서 이해하는 어휘의 수보다 많아 전체 언어의 크기는 단일언어사용 아동의 어휘 크기보다 클 수 있다(박지윤, 2007). 따라서 홍성미·임동선(2014)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2 언어를 모두 평가하여야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능력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녀 66.536명의 조사한 결과는 이중언어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매우 잘함(73.8%), 보통 (9.1%), 잘함(8.6%), 매우 못함(4.9%), 못함(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듣기 능력은 매우 잘함(75.0%), 잘함(9.7%), 보통(8.1%), 매우 못함(4.7%), 못함(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어 말하기 능력은 매우 못함(37.4%), 매우 잘함(24.4%), 못함(16.0%), 보통 (12.4%), 잘함 (9.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듣기 능력은 매우 못함(38.5%), 매우 잘함 (25.3%), 못함(13.3%), 보통(12.8%), 잘함(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현(2016)에 따르면 이중언어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수용력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중국어 수용력과 한국어 수용력 점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중언어 아동과 단일언어 아동의 말하기 수행력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언어의 유사성에 따른 비단어를 따라 말하기에 정반응률적인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유사 비단어를 구사하려는 단일언어 아동은 낮은 정반응률을, 이중언어 아동은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이때 단일언어 아동은 음절길이가 길어질수록 낮은 수행을 보였는데, 이는 이중모음 및 삼중모음이 가능한 중국어가 낯설어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중언어 아동은 단일언어 아동과 유사한 오류형태를 보이지만 단일언어 아동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중언어 아동에게만 나타나는 오류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임동선, 2001). 다시 말하면, 이중언어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언어 오류가 두 가지 언어에 동시 노출됨으로써 발달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중간언어(interlanguage) 형태인지 아니면 언어 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언어 이상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문제이다(이수복 등, 2007).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중언어 구사 아동들의 언어 오류를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유아의 어휘력

유아기의 언어 획득과 발달은 향후 전 생애에 걸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고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맺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발달을 촉진하게 하는 학습 기초 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아기의 언어능력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 의견, 생각 등을 구어, 수화, 문자 등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하거나 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심혜숙, 2007). 유아의 어휘 발달과정이 모방, 반복, 연습, 창의적 혼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힌 Brown(1986)은 유아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어휘력을 인식하고 문장의 구성과 문법 등을 학습해 나간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어휘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해당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언어 표현 단계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의 사용과 문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휘 발달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유아기에 부모가 적절한 언어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

이 된다는 의미이다. 김은지, 김명순, 손승희(201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어휘력의 상관관계를 만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와 비교하여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수용과 표현어휘력 점수 분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 주양육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아 언어습득의 양과 질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는 연구(Barnes, Gutfreund, Satterly, & Wells, 1983)와 어머니가 긴 문장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제공했을 때 유아의 언어발달이 촉진된다는 연구(Beals, 2005)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내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원만한 한국어 사용을 위하여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자녀에게 일부분의 언어적 자극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일반가정의 유아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지체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어머니 이외에 사회 및 교육의 경험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정상발달 유아를 따라잡는다고 보고하기도 한다(장유경 외, 2003).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출신 유아의 언어발달지체 현상은 유아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 이외의 사회적 경험과 교육경험의 보완 정도가 학습과 관련된 문어적 경험들을 보완하고 발달시켜나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김민화, 신혜은, 2008)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지체가 유아기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령기까지 이어져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문제가 됨을 보고하기도 한다(김갑성, 2006; 김근영 외, 2009; 오성배, 2005). 따라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언어의 기초를 익히는 중요한 과정이며 유아기에 급속하게 어휘가 증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아기의 어휘력 발달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중언어의 노출되는 양과 질에 따라 이중언어 환경은 자녀의 언어습득의 속도와 능숙함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가족 내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여부와 가족의 언어환경 변수에 따라 이중언어사용은 달라질 수 있다(박성원, 신동일, 2013). 나카지마 카즈코(2012)의 연구는 2개의 언어와 문화 습득에 관한 언어 형성기를 도식화하면서 모국어 문화의 형성기에 속한 5세의 유아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말하기를 습득하는 시기가 시작되어 언어 형성기 전반에 걸쳐서 이후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유아기부터 이미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습득하게 되며 이 시기에 어린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고 많은 접촉을 해 온 어머니는 양질의 모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녀가 3세 이전에는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가장 잘 소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해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정승, 201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언어사용과 자녀와의 밀접한 언어접촉 빈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서종남, 2010).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결혼이민 여성, 특히 어머니들이 자신의 모국어 활용에 자긍심을 느끼며 소통을 원활히 부추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들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것이며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민자 가정, 즉 다문화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의 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 가구가 전체 다문화 가구의 85.7%를 차지하고 있는(여성가족부, 2019)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들의 이중언어 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탐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아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오상희, 2012; 최소연, 2015). 과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결여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 언어를 혼동하여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며,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의 정책과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는 이주자의 모국어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두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문화적으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기초 언어처리 능력과 인지적 능력까지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언어사용은 두 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사고가 유연해지는 강점이 될 수 있다(박은민, 2013).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이중언어의 사용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홍종명, 2012)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긍정적인 이중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모국어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가정문해환경과 유아의 어휘력

가정은 유아가 출생하면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가정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언어적 자극을 받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발달을 시작하게 된다(윤영은, 2010). 사회적 상호작용 주의자인 Vygotsky는 언어에 의해 유아의 사회문화적인 경험이 발달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발달의 주체로 유아가 가진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인 자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미 있고 유능한 성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하였다(송요현, 2009).

문해능력은 읽기 및 쓰기와 관련된 일련의 기술과 지식적 기반을 뜻한다. 영아기부터 언어적 상호작용, 인쇄물 및 문해 관련 도구에의 노출 및 탐색, 주변 성인에 의한 지도 등에 의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유아기를 거쳐 더욱 풍성해지는데 이러한 언어능력을 출현적 문해 (emergent

literacy)라고 한다(Phillips & Lonigan, 2009). 출현적 문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정은 유아가 언어와 문해를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으로써, 문해 활동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참여하게 되는 장소라는 것이다(DeBaryshe, Binder, & Buell, 2000).

가정문해환경은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 왔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가정 내 유아 도서의 수, 유아가 문해 관련 자료에 노출되는 빈도로 가정문해환경을 정의하였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Morrow(1997)는 가정문해환경이란 유아의 문해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인적, 물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McLane과 McNamee(1990)는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유아의 가정환경이 물리적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얼마나 언어와 관련된 자료를 접하고 그 의미와 사용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인간관계까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가 책을 읽거나 문해 관련 활동을 하는 데 보내는 시간(Leseman & De jong, 1998), 유아의 언어발달을 도울만한 가정에서의 부모 활동이 가정문해환경에 포함되기도 한다.

Taylor(1983)에서는 한 가정이 문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용하는 양식은 그다음 세대에게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문해에 대한 지식이 전수된다는 점에서 유아의 문해발달에 미치는 가정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년기부터 아동과 가까이 있는 어머니는 유아의 문해 능력에 핵심적인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Dunkin, 1978; Snow, 1977). 일찍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유아의 경우,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거나 자녀에게 문해 자료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 준 부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아기 자녀와 부모의 책 읽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과 초기 문해 기술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dams, 1990; Craim-Thoreson & Dale, 1992; Leseman & de Jong, 1998).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가정문해환경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황현이(2005)의 연구는 만 4-5세 유아 142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정문해환경에 대한 연구결과, 중류층 가정은 저소득층 가정보다 유아에게 더 풍부한 가정문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활발한 가정문해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류층의 가정은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유아의 문해학습에 대해 부모의 관심, 지원하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유아를 지지해 주고 있으므로 유아의 언어발달과 어휘력 발달에 있어 가정문해환경의 중요성은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다. 호수진(2008)은 어머니의 문해신념 및 가정문해환경을 알아보고 이들이 만 2세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만 2세 영아의 어휘력(표현어휘, 이해어휘, 그림어휘력)은 가정의 읽기・쓰기 자료가 풍부하고, 부모의 문해 모델링이 자주 일어나며, 영아의 책 읽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높았음을 밝혔다. 만 4, 5세 유아 2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의 문해환경과 유아의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수진(2009)의 연구도 역시 문해환경 구비 및 활용이 활발할수록 유아의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2010)는 만 3~5세 다문화가정 유아 32명, 그들의 어머니 중 4명과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가정문해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유아들의 언어능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유아에게 일반 가정에 비해 부족하지만 적절한 문해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책을 함께 읽는 등의 문해활동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문해학습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와 문해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어휘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중언어 환경은 부모가 협력하여 이루어야 하는 '사회화'의 일부이며(허청아, 2014) 부모에 의해 두 언어를 경험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중언어사용자는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언어 모두를 모국어처럼 인식하고 사용한다. 특히, 이중언어사용

가정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언어적 자극을 받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발달을 시작하게 된다(윤영은, 2010). 더욱이 유아의 문해발달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 의미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발현적 문해(emergent literacy)와 초기 문해(early literacy)의 관점에서 유아의 문해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지린성의 2개 유치원 중 만 3세 학급 총 4반에 속한 유아 총 126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총 2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변 투먼시와 지린성 매하구시의 유치원에서 두가지 언어를 병용하는 '부분친입식(immersion)'을 교육방식 사용한다. '부분친입식' 이중언어 교육은 한국어에 능통한 교사들이 민족언어(한국어)를 사용하여 반일활동을 조직하여 민족언어가 첫 순위이고, 나머지 반일은 중국어가 능통한 교사들이 한어로 활동을 조직하여 유아가 한어의 언어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 중 31%의 유아는 2020년 3월에 입원하였고 69%의 유아는 2020년 8월에 입원하였다.

유아의 표현어휘가 만 2~3세와 만 3~4세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이수정 외, 2008)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현어휘 관찰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지린성 매하구시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에 거주하는 만 3세 유아로, (1)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사용되었고, (2) 부모의 모국어가 한국어 또는 중국어이며, (3) 유아 자신은 부모 및 교육기관의 교사로부터 감각, 언어, 인지, 정서 발달 및 행동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경우여야 한다. 조사를 시작할 때 우선 부모가 가정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질문지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 성별, 형제자매 유무, 유아출생순위,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월평균소득,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아버지 한국어 배운 기간, 어머니 한국어 배운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 결과를 <표 Ⅲ-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성별은 여자보다(46명, 36.5%) 남자가 80명(63.5%)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 형제자매 수가 0.6명(*SD* = 0.54)이었으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57명, 45.2%)보다 있는 경우가 69명(54.8%)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 유아들의 평균월령은 41.1개월(3년 5개월)이었으며, 3세 6~11개월(51명, 40.5%)보다 3세 0~5개월(75명, 59.5%)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구 대상 유아의 출생순위에는 첫째(59명, 46.8%)보다 둘째인 경우가 67명(53.2%)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 평균 연령은 37.8세(*SD* = 5.00)였으며, 30대가 75명(5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40대 44명(34.9%), 20대 5명(4.0%), 50대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35.6세(4.47)였으며, 30대가 81명(6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40대 33명(26.2%), 20대 12명(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4명(2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중학교 졸업과 2~3년제 대학 졸업이 각각 32명(25.4%), 4년제 대학 졸업 26명(20.6%), 대학원 졸업 이상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이 40명(3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중학교 졸업 37명(29.4%), 4년제 대학 졸업 27명(21.4%), 고등학교 졸업 22명(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평균 월소득이 5,000~10,000위엔 미만이 77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0,000~15,000위엔 미만 28명(22.2%), 15,000~20,000위엔 미만 13명(10.3%), 5,000위엔 미만 8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이 생산직(공장, 건설, 노무) 45명(3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서비스직(판매, 식당, 운전, 배달 등)과 기타(무직, 퇴직, 가사 등) 22명(17.5%), 전문직(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21명(16.7%), 관리직(회사원, 공무원) 16명(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이 기타(무직, 퇴직, 가사 등)가 33명(2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서비스직(판매, 식당, 운전, 배달 등) 31명(24.6%), 전문직(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29명(23.0%), 생산직(공장, 건설, 노무) 19명(15.1%), 관리직(회사원, 공무원) 14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한국어 배운 기간은 10년 이상이 61명(4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년 미만 48명(38.1%), 5~10년 미만 9명(7.1%), 1~5년 미만 8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한국어 배운 기간 역시 10년 이상 65명(5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년 미만 46명(36.5%), 1~5년 미만 13명(10.3%), 5~10년 미만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유아 성별	남자	80	63.5
	여자	46	36.5
유아 연령	3세 0~5개월	75	59.5
	3세 6~11개월	51	40.5
	평균(표준편차)	41.1(3.56)개월	
형제자매 유무	없음	57	45.2
	있음	69	54.8
	평균(표준편차)	0.6(0.54)명	
유아출생순위	첫째	59	46.8
	둘째	67	53.2
아버지 연령	20대	5	4.0
	30대	75	59.5
	40대	44	34.9
	50대	2	1.6
	평균	37.8(5.00)세	
어머니 연령	20대	12	9.5

	30대	81	64.3
	40대	33	26.2
	50대	0	0
	평균 연령	35.6(4.47)세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32	25.4
	고등학교 졸업	34	27.0
	2~3년제 대학 졸업	32	25.4
	4년제 대학 졸업	26	20.6
	대학원 졸업 이상	2	1.6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37	29.4
	고등학교 졸업	22	17.5
	2~3년제 대학 졸업	40	31.7
	4년제 대학 졸업	27	21.4
가정 월평균소득	5,000위엔 이하	8	6.3
	5,000~10,000위엔 이하	77	61.1
	10,000~15,000위엔 이하	28	22.2
	15,000~20,000위엔 이하	13	10.3
아버지 직업	서비스직 (판매, 식당, 운전, 배달 등)	22	17.5
	관리직 (회사원, 공무원)	16	12.7
	생산직 (공장, 건설, 노무)	45	35.7
	전문직 (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21	16.7
	기타 (무직, 퇴직, 가사 등)	22	17.5
어머니 직업	서비스직 (판매, 식당, 운전, 배달 등)	31	24.6
	관리직 (회사원, 공무원)	14	11.1
	생산직 (공장, 건설, 노무)	19	15.1
	전문직 (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29	23.0
	기타 (무직, 퇴직, 가사 등)	33	26.2
아버지 한국어 배운 기간	1년 이하	48	38.1
	1~5년 이하	8	6.3

	5~10년 이하	9	7.1
	10년 이상	61	48.4
어머니 한국어 배운 기간	1년 이하	46	36.5
	1~5년 이하	13	10.3
	5~10년 이하	2	1.6
	10년 이상	65	51.6
계		126	100.0

2) 연구 대상의 가정문해환경 특성

연구 대상 가구의 문해환경 특성은 장서량, 책 종류, 월평균 책 구입량 등이 포함하였으며,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Ⅲ-2〉에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 있는 책 수량이 0～100권인 경우가 69명(5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200권 이상 37명(29.4%), 101～200권 20명(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책 종류별로 장서량을 살펴보면, 옛이야기 그림책의 수량이 10권 미만이 90명(7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30권 미만이 23명(18.3%), 30～50권 미만이 7명(5.6%), 50권 이상이 6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상 그림책의 수량이 10권 미만이 65명(5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30권 미만 41명(32.5%), 30～50권 미만 10명(7.9%), 50권 이상 10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주의 그림책의 수량이 10권 미만이 77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30권 미만 30명(23.8%), 30～50권 미만이 11명(8.7%), 50권 이상이 8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동요 그림책의 수량이 10권 미만이 74명(5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30권 미만 32명(25.4%), 30～50권 미만과 50권 이상 10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그림책의 수량이 10권 미만이 69명(5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30권 미만 27명(21.4%), 50권 이상 24명(19.0%), 30～50권 미만 6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구입하는 책의 월평균 수량을 살펴보면, 부모용 책의 구입 수량이 1권이 59명(4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0권(없음) 34명(27.0%), 2권 18명(14.3%), 3권 8명(6.3%), 4권 이상 7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책의 구입량은 2권이 39명(31.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권 36명(28.6%), 3권 25명(19.8%), 4권 이상 19명(15.1%), 0권(없음) 7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연구 대상 가구의 문해환경 특성 분석결과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장서량		0~100권	69	54.8
		101~200권	20	15.9
		200권 이상	37	29.4
책 종류	옛이야기 그림책	10권 이하	90	71.4
		10~30권 이하	23	18.3
		30~50권 이하	7	5.6
		50권 이상	6	4.8
	환상 그림책	10권 이하	65	51.6
		10~30권 이하	41	32.5
		30~50권 이하	10	7.9
		50권 이상	10	7.9
	사실주의 그림책	10권 이하	77	61.1
		10~30권 이하	30	23.8
		30~50권 이하	11	8.7
		50권 이상	8	6.3
	동시동요 그림책	10권 이하	74	58.7
		10~30권 이하	32	25.4
		30~50권 이하	10	7.9
		50권 이상	10	7.9
	기타 그림책	10권 이하	69	54.8
		10~30권 이하	27	21.4
		30~50권 이하	6	4.8
		50권 이상	24	19.0
월평균 책 구입량	부모용 책	없음	34	27.0
		1권	59	46.8
		2권	18	14.3
		3권	8	6.3
		4권 이상	7	5.6

	없음	7	5.6
자녀용 책	1권	36	28.6
	2권	39	31.0
	3권	25	19.8
	4권 이상	19	15.1
계		126	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첫째,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차이와 둘째,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문해환경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관계, 셋째,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넷째, 조선족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도구를 활용해 유아의 이중언어 어휘력을 측정하였고, 질문지를 구성하여 부모의 가정 내 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을 조사하였다.

1)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중 표현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한 표현어휘력 검사(RETV-E)는 문헌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연령별 어휘 난이도와 품사비율 그리고 한국어에서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품사별 비율은 명사 57.30%, 동사 31.35%, 형용사 및 부사 11.35%이다.

표현어휘력 검사는 그림을 보고 유아가 그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1차 검사는 연구자가 유아에게 중국어로 목표 어휘를 산출하려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국어로 질문을 한다. 중국어 어휘를 검사 후, 2차 검사는 한국어로 어휘를 산출하려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국

어로 질문을 다시 한다. 유아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여 점수로 평가된다. 만약 유아가 8개 문항 중 6문제를 틀리게 되면, 응답한 마지막 문항을 기준(최고한계선)으로 오답 항목의 개수를 빼낸 원점수를 산출하여 최종점수를 판단하게 된다.

표현어휘력 검사도구의 각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질문의 형태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목표 어휘 품사별 질문형태

품사	목표어휘 특성	목표 어휘	질문형태
명사	목표어가 개별 사물인 경우	컵 杯子	"이게 뭐예요?" "這个是什么？"
	목표어가 사물의 범주명인 경우	장난감 玩具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지요?" "像這樣的東西我們把它叫做什么？"
	목표어가 사람인 경우	할아버지 爺爺	"이 사람이 누구지요?" "這个人是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像這樣的人我們如何称呼他？"
동사	목표어가 사람 또는 다른 생물체가 행하는 행위인 경우	목욕하다 洗澡	"이 00가(이) 뭐하고 있지요?" "...正在做什么？" "뭐해요?" "在干什么？"
형용사/부사	목표어가 사람 또는 다른 생물체의 상태 또는 특징인 경우	춥다 冷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他現在怎么了？感覺如何？"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중언어의 양적,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Hamers와 Blanc(1989)가 제시한 언어사용성의 심리적 차원 중에서 가정 내에서 어떠한 상황적 환경을 조성해주느냐에 따라 언어사용성의 유형을 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언어사용 정도는 부모의 가정 내 이중언어사용 현황에 따라 균형적 사용과 지배적 사용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구지민, 2017; Hamers와 Blanc, 1989)에 의하여 관련 문항 총 10개가 도출되었다. 한 화자가 두 가지 언어를 각각 사용하는 점수(La, Lb)를 산출하여 공식(La - Lb)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한 결과가 0.5보다 클 경우 La언어 지배적 사용, 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Lb언어 지배적 사용, 기타의 경우 균형 사용으로 분류된다.

〈표 Ⅲ-4〉 언어사용유형 분류 방법

언어사용 유형	언어사용 점수 (La-Lb)
a언어 지배	-0.5 이하
b언어 지배	0.5 이상
균형	-0.5~0.5

3) 가정문해환경

구체적으로 첫째, 가정문해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수진, 2009; 김안나, 2008; 명현옥, 2001; 이숙임, 2006; 정지연, 2005; 조호순, 2005; 천화영, 2010; 호수진, 2008; 황현이, 2005; Buhs, 2011; Carlson et al., 2012; Hammer et al., 2007; Ricci, 2011; Steensel, 2006; Wasik et al., 2010)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검토하여 문항들을 문해자료의 구비정도와 문해 활동의 두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문항들을 검토하여 문해자료의 구비 정도는 문해자료의 수와 다양성을 고려한 문항들로 선정하였고, 문해 활동은 유아 혼자 하는 활동, 부모의 문해 활동, 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상호작용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상호작용 활동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동일한 문항을 어

머니용과 아버지용으로 제작하였다.

셋째, 가정문해환경 관련 연구를 실시한 유아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아 1차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2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2차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질문지는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유아의 특성 3문항, 다문화가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을 포함하여 '부모의 언어사용 특성' 10문항, '다문화가정의 일반적 문해환경 특성' 4문항, '유아를 위한 가정 내 문해 자료 구비 정도' 5문항, '유아의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 11문항,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가정 내 문해활동' 8문항, '유아와 아버지 사이의 가정 내 문해활동' 8문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7보다 높으면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Ⅲ-4〉에서 제시되어 있다. 각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아버지 이중언어사용 특성 0.983, 어머니 이중언어사용 특성 0.978, 가정 내 문해자료 구비 0.901,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 0.914,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0.902,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0.876으로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표 Ⅲ-4〉 신뢰성 검증 분석 결과

카테고리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아버지 이중언어사용	10	0.983
	어머니 이중언어사용	10	0.978
다문화가정 문해환경	가정 내 문해자료 구비	5	0.901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	10	0.914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8	0.902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8	0.876

3. 연구 절차

연변 투먼시의 한 유치원에서 5명의 유아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대일로 어휘력을 검사하는 데 대략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투먼시와 지린성의 다른 유치원 두 곳에서 원장, 교사들,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 한 달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만 3세 학급에서 총 126명의 만 3세 유아들에게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검사하였고, 유치원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유아의 부모들에게 가정 내 언어사용과 문해환경에 대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부모들이 작성한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한-중 이중언어 표현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 유아의 일반특성 문항, 다문화가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알고 있는 언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E)(김영태 외, 2009)를 이용하여 표현어휘력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언어사용 특성, 일반적 문해환경 특성, 가정 내 문해자료 구비,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문해활동, 유아와 아버지 사이의 문해활동 등 문항들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로 검정하였다.

둘째, 조선족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어휘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하였다.

셋째,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한국어-중국어)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이용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가정 내 언어사용특성은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이중언어사용을 독립변수로, 표현어휘력(한국어-중국어)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집단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이용하였다. 부모 언어사용이 아동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검정한 후, 다중회귀를 통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문해환경에서 포함한 일반적 문해환경 특성, 가정 내 문해자료 구비,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문해활동, 유아와 아버지 사이의 문해활동 등 요인을 독립변수로,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어휘표현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및 등가연령

1) 유아의 이중언어 표현어휘력 원점수 및 등가연령

본 연구에서는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여 점수로 평가된다. 만약 유아가 8개 문항 중 6문제를 틀리게 되면, 응답한 마지막 문항을 기준(최고한계선)으로 오답항목의 개수를 빼낸 원점수를 산출하여 최종점수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어와 중국어 원점수 각각의 수준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Ⅳ-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은 26.4점(SD = 8.78), 중국어 표현어휘력은 35.7점(SD = 9.77)으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점수 차이가 유의했다(t = -7.522, p 〈 .001). 즉, 연구 대상인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들의 표현어휘력은 두 언어 간에 차이가 있어 한국어보다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원점수 비교 결과

N=126

변수	평균	표준편차	t
한국어 표현어휘력	26.4	8.78	-7.522***
중국어 표현어휘력	35.7	9.77	

***p < .001

측정된 유아의 표현어휘력 원점수와 규준표를 비교하여 유아의 등가연령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규준에 따르면, 어휘력 37점 미만은 3세 이하, 37~41점은 3세 0~5개월, 42~46점은 3세 6~11개월, 46~53점이 4세 0~5개월로 규정되어 있다(김영태 등, 2019). 유아

의 등가연령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Ⅳ-2〉 및 〈그림 Ⅳ-1〉에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등가연령은 3세 이하가 87명(6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3세 0-5개월(33명, 26.2%), 3세 6-11개월(6명,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등가연령은 3세 0-5개월이 49명(3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3세 이하(45명, 35.7%), 3세 6-11개월(21명, 16.7%), 3세 이상(11명,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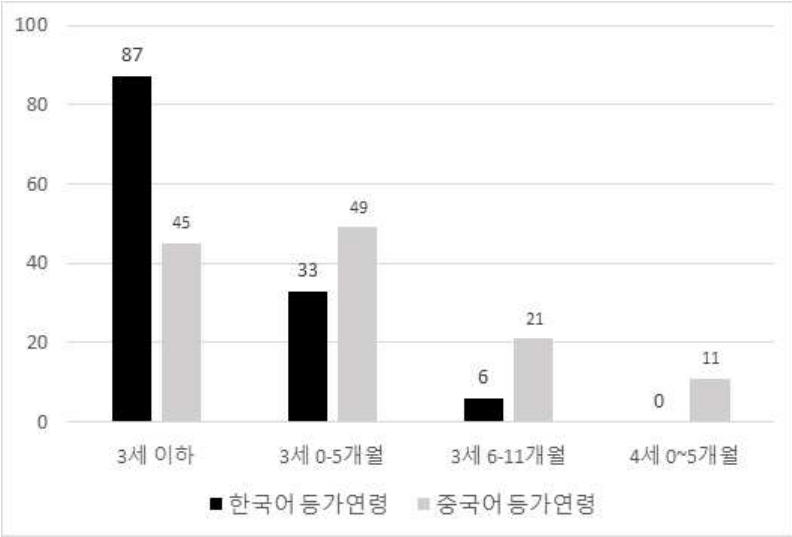
따라서 연구 대상 유아들의 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의 등가연령을 비교한 결과, 두 언어에 대해 모두 실제 월령보다 등가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 약 70%, 중국어는 약 36%의 유아의 등가연령이 실제 월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의 등가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분석 결과

N=126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한국어 등가연령	3세 이하	87	69.0
	3세 0-5개월	33	26.2
	3세 6-11개월	6	4.8
	4세 0~5개월	0	0.0
중국어 등가연령	3세 이하	45	35.7
	3세 0-5개월	49	38.9
	3세 6-11개월	21	16.7
	4세 0~5개월	11	8.7

등가연령 기준: 37 이하: 3세 이하, 37~41: 3세 0~5개월, 42~46: 3세 6~11개월, 46 이상: 4세 0~5개월.



〈그림 Ⅳ-1〉 연구 대상 유아의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2) 유아의 이중언어 어휘 목록 비교

만 3세 이중언어 유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가 각각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검사를 이용하여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에서 90개 어휘가 난이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연구 대상 유아들은 목록의 중후반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어 단어 목록에서는 55번(46, 50번 제외), 중국어 단어 목록에서는 57번까지 정답이 나타났다(부록3 참조). 또한, 연구 대상 유아들 중 절반 이상이 정답을 말한 문항은 한국어에서 28번, 중국어에서는 41번까지로, 이들이 중국어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에 대해 각각 정답률 상위 50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한국어를 기준으로 제시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한국어 단어의 경우, 경찰을 122명(96.8%)이 알고 있었으며, 다음은 할아버지, 과자, 문/대문, 주다, 연필, 이/이빨, 앉아있다, 춥다/추운, 넘어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단어는 126명(100.0%) 전원이 이/이빨을 표현할 수 있었고, 다음은 미끄럼틀(滑梯), 병아리(小鷄), 할아버지(爺爺), 연필(鉛筆), 목욕하다(洗澡), 타다(騎/騎馬), 경찰(警察), 문/대문(門/大門), 앉아있다의 순이었다.

이러한 상위 50개 단어는 모두 검사의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로 상대적으로 쉽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다. 또한, 두 언어의 상위 50개 단어 중에 46개(92.0%)가 중복되었다. 한국어 '뿔'과 '택시'를 표현할 수 있는 유아는 없었고, 반대로 중국어로는 '주사위(骰子)'와 '연(風箏)'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춘 유아가 전혀 없었다. 이 결과는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들이 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다른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가 특정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두 언어 간에 서로 달랐다. 중국어로는 '병아리'(小鷄)가 정답률 3위(99.2%)였지만, 한국어로는 27위(51.6%)로 차이가 컸다. 중국어의 '미끄럼틀(滑梯)'이 2위(99.2%)였지만 한국어로는 42위(30.2%)였고, 중국어의 '타다(騎)'가 7위(96%)였지만 한국어로는 32위(46.8%)로 차이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에 대한 정답률이 비슷하거나, 한국어 정답률이 더 높은 문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문항에서 중국어 단어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유아마다 어떤 단어는 중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언어 학습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목록의 뒤쪽으로 갈수록, 즉, 한국어 단어에 대한 정답률이 낮아질수록 중국어 단어에 대한 정답률과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어 단어에 상응하는 중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Ⅳ-3〉 유아의 이중언어 어휘 목록 비교 결과

N=126

단어	한국어			중국어		
	순위	빈도 (n)	백분율(%)	순위	빈도 (n)	백분율(%)
경찰(警察)	1	122	96.8	8	120	95.2
할아버지(爺爺)	2	118	93.7	4	124	98.4
과자(餅干)	3	111	88.1	16	108	85.7
문/대문(門/大門)	4	111	88.1	9	120	95.2
주다(給/送給)	5	110	87.3	27	90	71.4
연필(鉛筆)	6	106	84.1	5	124	98.4
이/이빨(牙/牙齒)	7	105	83.3	1	126	100.0
앉아있다(坐着)	8	102	81.0	10	119	94.4
춥다/추운(冷)	9	102	81.0	20	100	79.4
넘어지다(倒/摔倒)	10	90	71.4	15	110	87.3
신호등(交通信号灯/紅綠灯)	11	89	70.6	22	95	75.4
목욕하다(胖/肥胖)	12	88	69.8	6	124	98.4
뚱뚱하다/뚱뚱한(胖/肥胖)	13	86	68.3	29	88	69.8
구름(云)	14	85	67.5	11	117	92.9
과일(水果)	15	83	65.9	19	101	80.2
무겁다/무거운(重, 沉)	16	82	65.1	31	85	67.5
바다(大海)	17	79	62.7	41	66	52.4
싸우다(爭吵/吵架/打架)	18	76	60.3	23	93	73.8
숫자(數, 數字)	19	76	60.3	17	108	85.7
놀이터(游樂場)	20	74	58.7	13	111	88.1
고추(辣椒)	21	69	54.8	18	102	81.0
오르다/올라가다(爬上/往上走)	22	68	54.0	12	113	89.7
시소(蹺蹺板)	23	68	54.0	30	86	68.3
소방차(消防車,救火車)	24	68	54.0	25	92	73.0
버섯(蘑菇)	25	66	52.4	33	81	64.3
신문(報紙)	26	66	52.4	38	69	54.8

병아리(小鷄)	27	65	51.6	3	125	99.2
장난감(玩具)	28	63	50.0	35	77	61.1
냉장고(冰箱)	29	62	49.2	24	92	73.0
자르가/베다(切/截斷)	30	62	49.2	40	69	54.8
운전하다(駕駛/開車)	31	60	47.6	14	111	88.1
타다(騎)	32	59	46.8	7	121	96.0
인사하다(打招呼/問好)	33	58	46.0	46	49	38.9
네모(四方形/正方形)	34	54	42.9	26	91	72.2
따다(摘)	35	53	42.1	39	69	54.8
떨어지다(掉下/墜落)	36	52	41.3	36	71	56.3
화내다/성내다(發火/生气)	37	49	38.9	32	83	65.9
칫솔(牙刷)	38	48	38.1	21	95	75.4
게(螃蟹)	39	48	38.1	34	81	64.3
컴퓨터(電腦)	40	44	34.9	28	88	69.8
냄새맡다(聞/嗅)	41	42	33.3	37	70	55.6
미끄럼틀(滑梯)	42	38	30.2	2	125	99.2
거미줄(蜘蛛网)	43	32	25.4	42	60	47.6
똑같다/똑같은(一樣/同樣)	44	31	24.6	45	50	39.7
장화(雨靴/靴子)	45	18	14.3	47	43	34.1
북(鼓)	46	11	8.7	43	55	43.7
주사위(骰子)	47	8	6.3	-	-	-
촛불(蜡燭)	48	4	3.2	49	33	26.2
연(風箏)	49	3	2.4	-	-	-
기어가다(爬)	50	2	1.6	44	52	41.3
뿔(角/鹿角/犄角)	-	-	-	48	37	29.4
택시(出租車)	-	-	-	50	22	17.5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가정문해환경, 유아 표현어휘력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Ⅳ-4〉 참조). 유아의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서로 달랐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점수 모두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r = -0.192, p 〈 .05) 보다 어머니의 이중언어사용(r = -0.272, p 〈 .01) 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중국어를 더 많이 쓸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점수는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어머니 r = 0.228, p 〈 .05; 아버지 r = 0.240, p 〈 .01). 즉, 한국어와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높다.

또한, 가정문해활동과 유아 표현어휘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해자료 구비정도만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있었고(r = 0.355, p 〈 .001), 다른 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 문해자료 구비정도(r = 0.397, p 〈 .001), 문해활동 빈도(r = 0.584, p 〈 .001),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r = 0.359, p 〈 .001),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r = 0.536, p 〈 .001)는 모두 유아의 중국어 어휘표현력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 부모들 중 더 많은 수가 가정에서 중국어를 위주로 사용하여 유아와의 문해활동도 중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어휘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r = -0.104, *ns*).

〈표 Ⅳ-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126

변수	아버지 언어사용	어머니 언어사용	문해자료 구비정도	문해활동 빈도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
아버지 언어사용	1						
어머니 언어사용	0.886***	1					
문해자료 구비정도	0.028	-0.062	1				
문해활동 빈도	0.040	0.011	0.382***	1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0.092	-0.201*	0.373***	0.289**	1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0.011	-0.031	0.346***	0.650***	0.597***	1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	-0.192*	-0.272**	0.355***	0.062	0.160	0.108	1
유아 중국어 표현어휘력	0.240**	0.228*	0.397***	0.584***	0.359***	0.536***	-0.104

*p < .05, **p < .01, ***p < .001

3.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표현어휘력

1)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

본 연구에서 이중언어사용은 부모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국어를 더욱 많이 사용한 것을 의미하였다. 대상 가정 부모가 집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특성을 Hamers & Blanc(1995)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상 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를 평균(표준편차)을 통하여 파악한 이후, Hamers & Blanc(1995)이 규정한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Hamers & Blanc(1995)에 따르면, 이중언어(L1, L2)의 사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L1 - L2"의 값을 산출하였다. 그 값이 0.5보다 클 경우 L1언어 지배적 사용, 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L2언어 지배적 사용, 기타의 경우 균형 사용으로 분류된다. 부모 이중언어사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 점수는 아버지가 0.78, 어머니가 0.85로, 모두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아버지의 경우 중국어 지배 유형이 76명(6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균형(32명, 25.4%), 한국어 지배(18명,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중국어 지배 유형이 76명(6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균형(37명, 29.4%), 한국어 지배(13명,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 가정에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고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약 1/4), 중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5〉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

N=126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아버지	한국어 지배	18	14.3

언어사용	균형	32	25.4
	중국어 지배	76	60.3
	평균(표준편차)	0.78(1.07)	
어머니 언어사용	한국어 지배	13	10.3
	균형	37	29.4
	중국어 지배	76	60.3
	평균(표준편차)	0.85(0.98)	
계		126	100.0

주) 분류기준: < -0.5: 중국어 지배; > 0.5: 한국어 지배; 기타: 균형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사용이 상관관계가 높아, 각각 한 언어씩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표 Ⅳ-6〉 참조).

아버지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도 한국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1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가 두 가지 언어를 균형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머니도 균형 유형인 경우가 23명(71.9%)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가 중국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도 중국어 지배형인 경우가 69명(90.8%)으로 가장 많았다. 즉,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한국어 지배적이며 어머니가 중국어 지배인 경우가 0명(0%), 아버지가 중국어 지배적이며 어머니가 한국어 지배인 경우가 0명(0%)으로 나타나, 즉 부모가 각각 다른 언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부모 간 이중언어사용 유형의 조합

N=126

아버지 언어사용 유형	어머니 언어사용 유형	빈도(*n*)	백분율(%)
한국어 지배 (*n*=18)	한국어 지배	11	61.1
	균형	7	38.9
	중국어 지배	0	0.0
균형 (*n*=32)	한국어 지배	2	6.3
	균형	23	71.9
	중국어 지배	7	21.9
중국어 지배 (*n*=76)	한국어 지배	0	0.0
	균형	7	9.2

	중국어 지배	69	90.8

2)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이어서 부모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부모의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하는 유형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표현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ANOVA분석을 실행하였다. 사후분석은 Dunca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Ⅳ-7〉에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라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며(F = 1.920, p 〉 0.1), 각 유형의 값이 한국어 지배(M = 28.2, SD = 7.79), 균형(M = 28.3, SD = 10.02), 중국어 지배(M = 25.2, SD = 8.33) 서로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라서는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차이가 있었다(F = 2.699, p 〈 .1). 어머니 언어사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은 한국어 지배(M = 30.5, SD = 7.82), 균형(M = 27.6, SD = 10.42), 중국어 지배(M = 25.1, SD = 7.82)로 나타났다. 사후분석(Duncan)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중국어 지배형인 경우보다 한국어 지배형인 경우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더 높았고, 균형인 경우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즉, 아버지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가정 내 이중언어사용 유형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관련을 가지며, 어머니가 중국어를 주로 쓰는 경우보다 한국어를 주로 쓰는 가정에서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7〉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N=126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Duncan)
아버지 언어사용 유형	한국어 지배	28.2	7.79	1.920	
	균형	28.3	10.02		
	중국어 지배	25.2	8.33		
어머니 언어사용 유형	한국어 지배	30.5	7.82	2.699+	한국어 지배 > 중국어 지배
	균형	27.6	10.42		
	중국어 지배	25.1	7.82		

종속변수: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

$^{+}p < .1$

3)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Ⅳ-8〉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F = 11.424, p 〈 .001). 아버지의 유형별로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은 한국어 지배(M = 26.2, SD = 8.33), 균형(M = 37.4, SD = 10.05), 중국어 지배(M = 37.1, SD = 8.75)로 나타났다. 사후분석(Duncan)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한국어 지배형인 경우보다 균형과 중국어 지배형인 경우에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더 높았고, 균형과 중국어 지배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 이중언어사용 유형에 따라서도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차이가 있었다(F = 13.061, p 〈 .001). 어머니 유형별로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은 한국어 지배(M = 23.8, SD = 7.79), 균형(M = 36.1, SD = 9.53), 중국어 지배(M = 37.5, SD = 8.83)로 나타났다. 사후분

석(Duncan)의 결과, 어머니 이중언어사용 유형이 한국어 지배형인 경우보다 균형과 중국어 지배형일 때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더 높았고, 균형과 중국어 지배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면, 이중언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국어를 주로 쓰거나 적어도 두 언어를 고르게 쓰는 경우, 한국어를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

N=126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Duncan)
아버지 언어사용 유형	한국어 지배	26.2	8.33	11.424***	중국어 지배 = 균형 > 한국어 지배
	균형	37.4	10.05		
	중국어 지배	37.1	8.75		
어머니 언어사용 유형	한국어 지배	23.8	7.79	13.061***	중국어 지배 = 균형 > 한국어 지배
	균형	36.1	9.53		
	중국어 지배	37.5	8.83		

종속변수: 유아 중국어 표현어휘력

***$p < .001$

4)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 이중언어사용에 따른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부모 각각의 언어사용유형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유형 분석결과에서 부모가 각각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중언어사용점수를 합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한 결과는 〈표 Ⅳ-9〉에 제시하였다.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7.254, p 〈 .01),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총 5.5%로 나타났다. 부모 언어사용의 비표준회귀계수가 -2.54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모 이중언어사용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중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N=126

변수	비표준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B	Std. Error	Beta	
상수	30.611	1.738		17.609***
부모 이중언어사용 정도	-2.545	0.945	-0.235	-2.693***
F	7.254**			
수정된 R^2	0.055			

종속변수: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

**p < .01, ***p < .001

5)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0.630, p 〈 .01),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총 7.9%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의 비표준화회귀계수가 3.38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는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가정에서 중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부모의 이중언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N=126

변수	비표준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
	B	Std. Error	Beta	
상수	30.058	1.909		15.744***
부모 이중언어사용 정도	3.384	1.038	0.281	3.260***
F	10.630**			
수정된 R^2	0.079			

종속변수: 유아 중국어 표현어휘력

**$p < .01$, ***$p < .001$

4. 조선족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1)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 요소(문해자료 구비정도, 문해활동 빈도,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를 독립변수로,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요인)값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의 VIF값이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4.704, p 〈 .01), 종속 변수인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대한 설명력은 10.6%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문해활동 빈도,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는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해자료 구비정도는 유의하였다. 문해자료 구비정도의 비표준회귀계수가 3.44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

하였으며, 문해자료 구비정도가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문해자료를 많이 구비하고 있을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Ⅳ-11〉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N=126

변수	비표준회귀계수		표준 회귀계수	*t*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	16.293	3.135		5.196***	
문해자료 구비정도	3.447	0.884	0.374	3.899***	1.285
문해활동 빈도	-1.029	1.105	-0.109	-0.931	1.917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0.396	1.266	0.035	0.313	1.720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0.340	1.591	0.029	0.214	2.540
F			4.704**		
수정된 R^2			0.106		

종속변수: 유아 한국어 표현어휘력

$^{**}p < .01$, $^{***}p < .001$

2)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 요소(문해자료 구비정도, 문해활동 빈도, 아버지 가정 내문해활동, 어머니 가정 내문해활동)를 독립변수로,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요인)값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에서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의 VIF값이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1.272, $p < .001$),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총 39.3%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비해 가정문해환경이 설명하는 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해자료 구비정도, 문해활동 빈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해자료 구비정도의 비표준회귀계수가 1.623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고,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문해자료를 많이 구비할수록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해활동 빈도의 비표준회귀계수가 3.96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문해활동 빈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유아가 문해활동을 자주 경험할수록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아진다.

셋째,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의 비표준회귀계수가 2.484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문해활동 지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회귀계수로 다문화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문해활동빈도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문해자료 구비정도, 어머니 문해활동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N=126

변수	비표준회귀계수		표준 회귀계수	t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	12.407	2.872		4.319***	
문해자료 구비정도	1.623	0.810	0.158	2.003*	1.285

문해활동 빈도	3.965	1.012	0.378	3.918^{***}	1.917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0.992	1.160	0.078	0.855	1.720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	2.484	1.457	0.189	1.704^{+}	2.540
F			21.272^{***}		
수정된 R^2			0.393		

종속변수: 유아 중국어 표현어휘력

$^{+}p < .1$, $^{*}p < .05$, $^{***}p < .0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조선족 가정 유아들이 동시적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습득하는 만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족 가정의 분포가 높은 중국 연변 투먼시와 지린성 매하구시의 유치원 두 곳에서 만 3세 학급 총 126명의 유아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아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어휘력을 일대일로 검사하였고, 부모용 설문지로 가정의 일반적 특성, 가정 내 부모의 이중언어(한국어, 중국어)사용, 가정 내 문해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 표현어휘력을 살펴본 결과, 두 언어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어보다 중국어 어휘력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원점수와 등가연령을 통한 비교에서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 가정 내 유아에게 이중언어의 노출되는 양과 질에 따라 유아의 언어습득에 영향을 받아, 가정 내에서 부모가 중국어를 더욱 많이 사용함에 따라 아동의 중국어 어휘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여부와 가족의 언어환경 변수에 따라 이중언어사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박성원, 신동일, 2013). 그리고 김향희, 김화수(2008)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표현어휘 능력이라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두 언어에 대해 모두 실제 월령보다 등가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국어의 경우 약 70%, 중국어는 약 36%의 유아의 등가연령이 실제 월령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이중언어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지체되고(Choi & Hwang, 2009; Hwang, 2010; Jeong, 2004; Kim, 2011)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단일언어 아동과의 언어발달

간의 차이가 사라진다고 있다(Geneesee, Nicoladis &Paradise, 1995; Genesee, Paradise & Cargo, 2004). 그 차이는 4~6세를 전후로 하여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 2009; 유승애・이지현, 2009). 또는, 조사대상 유아들이 주로 검사도구에서 난이도가 낮은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 더 많이 접하고, 쉬운 단어들을 더욱 많이 습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중국어와 한국어에는 모두 유사하였으므로 즉 언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경우 초기에 두 언어 모두 어휘력 발달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김영신, 2018).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소통 결여로 두 언어를 혼동하여 언어발달 초기에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박아름, 2018). 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아에게 이중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는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언어 중에 인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중언어 아동들은 한 사물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므로 사물의 이름이 임의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므로, 단어와 의미 사이의 상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lanco-Worall, 1972 : Vygotsky 1962) 이는 통한 이중언어 유아들은 중국어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 한국어-중국어 단어 표현가능성이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중언어 유아들이 각 언어에서 어휘력 수준은 또래보다 다소 낮지만, 두 언어로 어휘를 아는 데다, 두 언어에 겹치지 않게 획득한 어휘지식도 있어, 어휘력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부모의 이중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은 유아의 이중언어 표현어휘력과 상관을 가진다.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를 더 많이 쓸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이 낮은 반면, 중국어 표현어휘력 수준은 더 높았다. 또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이중언어사용이 유아의 어휘력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박성원과 신동일(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부모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김향희와 김화수(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표현어휘력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력과 큰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정문해활동과 유아의 표현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보다 중국어 어휘력이 더욱 다양한 가정문해활동 요소와 상관이 있었다. 문해자료 구비정도만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문해자료 구비정도, 문해활동 빈도, 아버지 문해활동 지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가 모두 유아의 중국어 어휘표현력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위에서 더 많은 부모들이 중국어 위주로 의사소통함을 보여준 결과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가정에서 문해환경 또한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문해자료의 구비나 문해활동 지도가 중국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여성이 결혼한 후 자녀 양육할 때 언어문제로 인하여 의사소통, 또한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도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주류사회의 언어인 한국어를 별도로 배울 기회를 얻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낮아 결국 일종의 언어의 습득이 부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김희재, 2015). 그러나 유아가 언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주 양육자의 이종언어의 자극은 전체적인 언어발달의 부진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모가 의식적으로 이종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어휘력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동시적 이중언어 유아의 부모는 중국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어 지배 유형은 가장 적으며, 균형적 사용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중언어사용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낮아지고, 중국어 표현어휘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가정 내에 부모의 언어사용이 유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김영란, 2011; 김은하, 전성숙, 변은경, 2014)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가정의 유아 언어 교육할 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종류가 유아의 그런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장유경 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언어발달 과정에서 부모 등의 가정 내 주 양육자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이다. 결국, 유아의 중국어를 더욱 많이 접함에 따라 중국어 어휘력이 한국어보다 더욱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결과는 Buac(2014), 우현경 외(2009)의 부모의 어휘력,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아동의 어휘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완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 이외에도 가정 내의 언어사용과 다양한 문해활동도 아동의 어휘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되었다.

넷째, 가정문해환경은 아동의 이중언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에 대해서는 문해자료 구비정도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해활동 빈도, 문해자료 구비정도, 어머니 문해활동 지도의 순으로 유아의 중국어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속한 가정에서 제공되어있는 문해환경은 영유아의 어휘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일상적 인쇄물에 대한 노출 정도나 유아의 도서관과 같은 교육 관련 시설 방문 횟수, 집에서 부모의 책이나 기타 문해자료를 읽어주는 횟수, 책을 읽어준 시작 연령 등 문해활동을 자녀 언어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한 요소들이다. 또한, 이처럼 유아의 언어교육을 촉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은 그들이 출생할 때부터 먼저 노출되는 가정환경, 즉 가정 내에서 구비된 문해자료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이태경(201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송호경(2019)의 연구에서도 가정문해환경이 자녀의 표현어휘력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책 읽

기, 책 읽기 상호작용 등의 문해활동의 빈도가 아동의 표현어휘력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박수옥(2016)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 등 문해활동이 자녀의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오애순(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오애순(2004)의 연구에서 가정 내 문해자료가 풍부할수록, 문해 관련 활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어휘력과 읽기 발달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유아의 언어발달지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부모의 언어사용 이외에도 가정 내 문해활을 통해 유아의 어휘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독서 등 문해자료를 많이 구비할수록 유아의 이중언어의 표현어휘력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 내에서 구비하는 문해자료가 많을수록, 유아가 가정에서 혼자 혹은 부모와 같이 문해자료를 읽을 빈도가 잦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많이 지도할수록 유아의 어휘력이 높았다고 주장한 연구(박수진, 김명순, 2010; 신혜영, 김명순, 2008)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등이 낮은 경우 유아의 표현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아의 어휘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 내의 문해환경을 통하여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경우 빈곤 자체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방식과 부모-자녀의 관계가 유아의 학습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태경, 2012). 즉, 부모님은 문해자료 구입하여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 교육에 큰 모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문해활동을 자주 할수록 아동의 어휘력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문해활동의 참석도 중요한 변소로 발견하였다. 자녀의 표현어휘력의 개선을 통하여 유아기뿐만 아닌 학습기의 사회적응력(Aro et al., 2012)과 학습능력(Chung, 2011; Lee et al., 2011)도 현저하게 개선할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가정 내 문해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혹은 동내 주민센터 등의 지역사회 자원이 활용되어 소수민족가정이 편하고 자연스레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교육에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입학 전까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의 학습력과 적응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문해활동 지도가 유아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어휘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밖에서 경제활동 많이 하고, 돌봄 활동을 어머니 주로 하는 실정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한 향후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한국어와 중국어 분리하여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가정 내 문해환경에 관한 변수인 가정 내 문해자료, 문해활동, 부모의 문해활동 지도 등 변수들은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종류 언어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용언어, 유아의 어휘력뿐만 아니라 가정 내 다른 언어의 문해자료의 구비정도, 다른 언어의 문해활동, 또한 부모의 다른 언어의 문해활동지도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완성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지린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한 조선족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 지역은 경제발전 속도가 느린 지역이며,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정소득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조선족을 대표한 대다수의 조선족 가정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지만, 연구 대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중국 전국이 조선족 가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국적,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선족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도 많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표현어휘력만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수용어휘력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은 조선

족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향후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수용어휘력으로 대체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더욱 많은 실제적 혹은 학술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금화, 황보명(2010). 5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43-158.

곽아정(1994).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문해환경과 유아 읽기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이정(2016).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 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11**(1), 117-140.

권성애(1992). 유아의 가정환경과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가정의 언어 환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희(2009). 이중 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34**, 57-115.

김수희(2003). 유아의 읽기 유창성과 가정 문해 환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란, 김영태(2011). 취학 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3-88.

김영욱(2009). 청각장애 유아의 인쇄물 인식과 언어능력, 문해기술 및 가정문해환경. **특수교육학연구**, **44**(3), 131-147.

김은지, 김명순, 손승희 (2016).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과 어휘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8**(3), 43-58.

김은하, 전성숙, 변은경(2014).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031-1043.

김인(2009).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지향점. **초등교육연구**, **22**(1), 23-42.

김희재(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민(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영, 고도흥, 이윤경(2006).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 유아의 음운인식능력**. 음성과학, 13(2), 35-46.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M(2006). 어머니-영아 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학회지**, **26**(5), 15-30.

박성원, 신동일(2013). 자녀의 이중언어에 관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의식연구: 서래마을 거주 가정의 사례에서.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9**(1), 69-100.

박영진(2016).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환경 및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진, 장인실(2018).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27-260.

박은민(2013).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3), 1-21.

박지윤(2007). 이중언어 환경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화, 김길숙(2008). 유아를 위한 가정문해환경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9), 87-97

배소영, 곽금주, 김근영, 정경희(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유아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한국언어치료학회**, **18**(4), 165-184.

봉진영, 배지희(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탐구. **유아교육연구**, **32**(3), 383-405.

서종남(2010).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서현, 이승은(2007).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설은혜, 김영주(2018). 이중언어 유아와 단일언어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 한국어와 중국어의 예. **이중언어학**, **71**, 191-222.

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유아교육**, **19**(4), 33-47.

송요현(2009).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 간 놀이 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상희(2012). 라티노의 이중언어 문제와 메스티사헤 정체성: 리처드 로드리게스와 아리엘 도르프만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성배(2005). 코시안 유아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오성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 변인,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 언어능력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영은(2010). 저소득 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해환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2003). 3-5세 유아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유아학회지**, 24(6), 1-14.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모형. **사회과학연구**, 19(2), 181-213

이수정(2008).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임(2006). 가정의 문해환경과 유아의 언어 능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숙(2015).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한 중국 결혼이민자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의 어려움 및 변화과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신동, 김진호, 이상희, 이경숙, 이연우, 성영화, 차재경 (2016). **다문화유아교육론**, 파주: 양서원.

장유경(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77-99.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161-186.

정계영(1993). 유아의 문해발달(Literacy Development)에 관한 연구.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12, 249-268.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

어치료연구, **13**(3), 33-52.

정지연(2005). 유아의 가정문해환경과 인쇄물 개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승석, 김희순(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학회 논문지**, **14**(11), 5549-5558.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6-29.

천화영(2010).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과 유아의 읽기 흥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호수진(2008). 어머니의 문해신념 및 가정문해환경이 만 2세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종명(2012). 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국**제지역 연구**. **16**(3), 279-302.

황보명(2013).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유아의 표현어휘 능력. **언어치료 연구**, **22**(4), 55-68.

황상심(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65-281.

황상심(2018).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사용에 관한 질적 탐색. **언어치료 연구**, **27**(1), 99-113.

황상심, 강복정(2016). 다문화 유아의 이중언어사용 추이 연구. **언어치료 연구**, **25**(1), 123-134.

황진영(2012). **한국다문화 사회의 이중교육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Alatis. E (1975). The compatibility of TESOL and bilingual educationg. In MK.

Arnberg. L.N.(1984). Mother tougue playgroups for pre-school bilingual childre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rlopmenr. 5, 65-80.

Buhs, E. S., Welch, G., Burt, J. & Knoche, L. (2011). Family Engagement in Literacy Activities: Revised Factor Structure for The Familia - an Instrument Examining Family Support for Early Literacy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1(7)*, 989-1006.

Brown. L. J. (1986). Developing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kills with children's books. *Childhood Education, 63(3)*, 102-107.

Bradley, R.H & Caldwell, B.M.(1980) The relation of home environment, cognitive competence and IQ among males and female. Child Development. *51*, 1140-1148.

Carlson, E., Bitterman, A. & Jenkins. F. (2012).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Its Role in the Achievement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6(2),* 67-77.

Chaney, C. (1992). Language Development, Metalinguistic Skills and Emergent Literacy in three-year-old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13,* 485-514.

Chen, S. X. (2015).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1),* 1-11.

Chomsky, N. (1959). Review of verbal behavior by B. F. Skinner. *Language, 35,* 26-58.

Gentner, D. (1982). Why nouns are learned before verb: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S. A. Kuczaj.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Hammer, C. S., Rodriguez, B. L., Lawrence, F. R. & Miccio, A. W. (2007). Puerto Rican Mothers' Beliefs and Home Literacy Practic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8,* 216-224

Higby, E., Obler, L., & Schwieter, J. (2015). Losing a first language to a second language. In J. Schweitzer(Ed.), The Cambridge handbook of bilingual process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M., Shetgiri. R., Barina. A., Tillitskil. J., & Flores, G. (2015). Raising bilingual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al attitudes, beliefs, and intended behavi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7 (4),* 1-19.

Leseman, P. P. & de Jong, P. F. (1998). Home Literacy: Opportunity Instruction, Cooperation, and Social-Emotional Quality Predictin Early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 294-319.

Mason, J. M.(1986). Kindergarten Reading: A Proposal for a Problem Solving Approach.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McLane, J. B. & McNamee, G. D. (1990). Early Liter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Morrow, L. M.(1997). Literacy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helping children read and write. 3rd. Needham Hedight, MA: Allyn &

Bacon.

Morrow, L. M.(1983). Home and School Correlates of Rearly Interest in Literatur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4),* 221-230.

Nation, I. S. P.(2010).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lson, K. E.(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149.

Ricci. L (2011). Home Literacy Environments, Interest in Reading and Emergent Literacy Skill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versus Typical Childre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5(6),* 596-609.

Steensel, R. (2006). Relations between Socio-Cultural Factors,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in the First Years of Primary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9(4),* 367-382.

Toppelberg, C. O., & Collin, B. A. (2010). Language, culture, and daptation in immigrant children. *Child &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4),* 697 - 717.

Tunmer, W, E., & Myhill, M. E. (1984).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ilingualism. In W. E. Tunmer, C. Pratt, M. L. Herriman, & J. Bowey(Eds.), Metalinguistic awareness in children. Berlin, DE: Springer-Verlag.

Wasik, B. A. & Hindman, A. H. (2010). Understanding the Home Language and Literacy Environments of Head Start Families:

Testing the Family Literacy Survey and Interpreting Its Findings. *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 13(2),* 71-91.

Zhang, D., & Koda, K. (2011).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word knowledge development: A study of young leaners of Chinese as a heritage language. *Bilingual Research Journal, 34(1),* 4-18.

부 록

<부록 1> 부모용 질문지(한국어)

<부록 2> 부모용 질문지(중국어)

<부록 3> 한-중 이중언어 유아용 표현어휘력 검사지

<부록 4> 조사 대상 유아 한국어-중국어 인지분포

<부록 1>: 부모용 질문지(한국어)

부모용 질문지

이 질문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논문 주제인 '부모의 언어사용과 가정문해환경이 한-중 이중언어 유아의 어휘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 결과는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셔야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석사과정 곽미언

Ⅰ. 유아와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유아는 형제자매가 있나요?
① 없음(외동) ② 있음 (명)

3. 유아의 출생순위는 어떠한가요?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4. 부모 연령 및 학력 상황이 어떠한가요?

구분	나이	부모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아버지	만 세					
어머니	만 세					

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부부 월급을 합한 것)은 어떠합니까?
① 5,000위엔 미만
② 5,000위엔 이상~10,000위엔 미만
③ 10,000위엔 이상~15,000위엔 미만
④ 15,000위엔 이상~20,000위엔 미만
⑤ 20,000위엔이상~25,000위엔 미만
⑥ 30,000위엔 이상

6.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서비스직 (판매, 식당, 운전, 배달 등)	② 관리직 (회사원, 공무원)	③ 생산직 (공장, 건설, 노무)	④ 전문직 (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⑤ 기타 (무직, 퇴직, 가사)
아버지					
어머니					

7.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웠다면 얼마 동안 배우셨습니까?

구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아버지				
어머니				

Ⅱ.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사용 특성과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유아에게 주로 쓰시는 언어의 전체 비율을 고려하여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부모	한국어로만	거의 한국어로	한국어 + 중국어	거의 중국어로	중국어로만
1	자녀가 일어나거나 잠들 때 어떤 언어로 인사말을 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TV 볼 때 어떤 언어로 대화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 어떤 언어로 된 노래를 자주 부르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언어로 읽어주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와 놀아줄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훈육하거나 야단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9	자녀에게 새로운 단어 등 언어를 지도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숙제나 준비물 등 유치원 일과 도와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 가정의 문해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정에 가족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모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① 0~100권 ② 101~200권 ③ 201~300권
④ 301~400권 ⑤ 401~500권 ⑥ 501~600권
⑦ 601~700권 ⑧ 701권 이상

12. 가정에 유아가 볼 수 있는 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분	① 10권 미만	② 10~30권	③ 30~50권	④ 50권 이상
옛이야기 그림책				
환상 그림책				
사실주의 그림책				
동시/동요 그림책				
기타 그림책				

13. 가정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어른이 읽을 수 있

는 책이나 잡지, 신문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권 ③ 2권 ④ 3권 ⑤ 4권 이상

14. 가정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자녀가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잡지, 신문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권 ③ 2권 ④ 3권 ⑤ 4권 이상

유아를 위한 가정 내 문해자료 구비 정도에 관한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의 가정에는 다음 자료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5	사실적인 그림(실제 모습과 똑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 그림책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종류의 책들(전래동화, 동시, 동요집, 창작동화)	①	②	③	④	⑤
17	그림과 글자가 커서 아이와 함께 읽고 이야기 할_수 있는 큰 책	①	②	③	④	⑤
18	쓰기나 그리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종이(일반종이, 색종이, 스케치북, 신문지 등)	①	②	③	④	⑤
19	컴퓨터, 화이트보드, 또는 여러 가지 쓰기 도구들(연필, 크레파스, 색연필 등)	①	②	③	④	⑤
20	다양한 글자자료(단어카드, 한글 혹은 한자 자모음 블록, 자모음 카드, 글자판 등)	①	②	③	④	⑤

유아의 가정 내 문해활동 빈도에 관한 설문문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주에 1~2번	1주에 3~4번	1주에 5~6번	매일
가정에서 자녀는 다음 자료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21	사실적인 그림(실제 모습과 똑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 그림책	①	②	③	④	⑤
22	여러 종류의 책들(전래동화, 동시, 동요집, 창	①	②	③	④	⑤

	작동화)					
23	그림과 글자가 큰 책	①	②	③	④	⑤
24	쓰기나 그리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종이(일반 종이, 색종이, 스케치북, 신문지 등)	①	②	③	④	⑤
25	컴퓨터, 화이트보드, 또는 여러 가지 쓰기 도구들(연필, 크레파스, 색연필 등)	①	②	③	④	⑤
26	다양한 글자자료(단어카드, 한글 혹은 한자 자모음 블록, 자모음 카드, 글자판 등)	①	②	③	④	⑤

가정에서 자녀는 다음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27	가정에서 자녀는 **스스로 책을 읽기**	①	②	③	④	⑤
28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사전, 지도책, 백과사전, 요리책과 같은 책을 사용하는 것 **보기**	①	②	③	④	⑤
29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 책을 읽는 것을 **보기**	①	②	③	④	⑤
30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쓰는 모습(일기, 가계부 등)을 **보기**	①	②	③	④	⑤

♠ 이번 문항은 부모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와 부모 사이의 가정 내 문해활동에 관한 설문문항		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1주에 1~2번	1주에 3~4번	1주에 5~6번	매일
31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잡지, 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2	부모는 책, 가족, 가정 일에 대해 아이와 함께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3	부모는 자녀와 함께 카탈로그, 광고, 전단지, 편지와 같은 글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4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길의 표지판, 각 이름과 같은 주변 환경의 글자를 **얼마나 자주 손으로 가리키거나 읽어보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5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글을 쓰고 쓴 것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6	부모는 자녀와 함께 과자 봉지, 음식 상자 등에 있는 단어 또는 조리법, 약의 사용법, 장난감 만들기의 설명서와 같은 글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7	부모는 자녀와 함께 우체국, 마트, 슈퍼, 동물원 등에서 본 것과 읽은 것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 나누고 그것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써 보도록 하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8	부모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부모용 질문지 (중국어)

问卷

父母的语言使用和家庭读写环境对韩中双语幼儿的词汇量的影响

该问卷是为了分析首尔大学幼儿教育专业硕士论文主题“父母的语言使用和家庭读写环境对韩中双语幼儿的词汇量的影响”。您的应答将帮助研究人员开发相应亲子项目，促进幼儿教育事业的发展。

本资料不会用于研究以外的其他目的，所有数据只用于统计分析 ，请您放心填写。题目选项无对错之分，请按实际情况填写。

恳请您回答本问卷的全部问题，如有空缺将无法当作研究资料使用。衷心感谢您百忙之中抽出宝贵的时间，谢谢您的帮助。

首尔大学幼儿教育专业
硕士郭美言

I下面是关于幼儿和多文化家庭的一般人口统计学事项的情况，请您在符合的选项打“√”。

1. 幼儿的性别是什么?
①男　　②女

2.幼儿是否有兄弟姐妹?
①没有（独生子女）　②有（____名）

3.幼儿是第几胎出生的?
①一胎　②二胎　③三胎以上

4.关于父母的年龄及学历的情况，请您在符合的选项打“√”。

区分	年龄	父母的学历				
		①中学毕业及以下	②高中毕业	③专科毕业	④本科毕业	⑤研究生及以上
父亲	满　岁					
母亲	满　岁					

5.关于家庭的月均收入（夫妻工资合计），请在符合的选项打“√”。
①5,000 元以下
②5,000 元以上~10,000 元以下
③10,000 元以上~15,000 元以下
④15,000 元以上~20,000 元以下
⑤20,000 元以上~25,000 元以下
⑥25,000 元以上

6.关于父母的职业情况，请在符合的选项打“√”。

区分	①服务业（销售，餐饮，驾驶，外卖等）	②管理岗位（公司职员，公务员等）	③生产岗位（工厂，建设，农务）	④专业岗位（教师，医生，护士，科研人员等）	⑤其它（无业，退休，家务等）
父亲					
母亲					

7,关于父母的韩国语学习情况，请在符合的选项打“√”

区分	①未满 1 年	②1 年以上~未满 5 年	③5 年以上~未满 10 年	④10 年以上
父亲				
母亲				

II下面是关于多元文化家庭中父母语言使用的情况，请考虑父母对幼儿主要使用的语言的整体比例，在符合的选项打“√”。

编号	问题	父母	全部韩语	大部分韩语	韩语＋中文使用比例相同	大部分汉语	全部汉语
1	与子女起床或睡觉前用哪种语言打招呼?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2	与子女吃饭时使用哪种语言沟通?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	与子女看电视时使用哪种语言对话?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4	与子女经常唱哪种语言的歌曲?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5	给子女读书时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6	与子女玩耍时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7	教导或告诫子女时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8	让子女跑腿或帮忙时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9	在教授子女新的词汇等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10	在辅导子女作业或做幼儿园的课前准备使用哪种语言?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III下面是关于家庭阅读环境的情况，请在符合的选项打“√”。

11. 家庭中有多少本可供全家人阅读的书籍?
①0~100 本 ②101~200 本 ③201~300 本 ④301~400 本 ⑤401~500 本 ⑥501~600 本 ⑦601~700 本 ⑧701 本以上

12. 在家庭中幼儿能看到书的种类有哪些?

区分	10 本以下	10~30 本	30~50 本	50 本以上
历史故事图书（如：大禹治水）				
想象图书				
记实（生活类）图书				
诗歌、童谣类图书				
其它图书				

13. 您的家庭中平均一个月购买或订阅多少本可供成年人阅读的书籍，杂志或新闻?
①没有　②1 本　③2 本　④3 本　⑤4 本以上

14. 您的家庭平均一个月购买或订阅多少本可供子女阅读的书籍，杂志或新闻?
①没有　②1 本　③2 本　④3 本　⑤4 本以上

关于家庭中为幼儿读写材料储备的情况		没有	少	一般	多	非常多
您的家中有这些材料吗?						
15	生活类图书（模拟生活中可能发生的各种场景的书籍）	①	②	③	④	⑤
16	各种类型图书（传统童话、诗歌、童谣、想象绘本）	①	②	③	④	⑤
17	图片和字体很大能和孩子一起读和聊天尺寸较大的图书	①	②	③	④	⑤
18	用于写作或画画的各种纸张（普通纸、彩纸、素描本、报纸等）	①	②	③	④	⑤
19	电脑、白板或各种书写工具（铅笔、蜡笔、彩笔等）	①	②	③	④	⑤
20	多种文字资料（单词卡、韩文或拼音字母卡、键盘）	①	②	③	④	⑤

关于幼儿家庭读写活动频度的情况		不使用	1~2 次/周	3~4 次/周	5~6 次/周	每天
在家庭中子女使用以下材料有多频繁						
21	生活类图书（模拟生活中可能发生的各种场景的书籍）	①	②	③	④	⑤
22	各种类型图书（传统童话、诗歌、童谣、想象绘本）	①	②	③	④	⑤
23	图片和字体很大能和孩子一起读和聊天尺寸较大的图书	①	②	③	④	⑤
24	用于写作或画画的各种纸张（普通纸、彩纸、素描本、报纸等	①	②	③	④	⑤
25	电脑、白板或各种书写工具（铅笔、蜡笔、彩笔等）	①	②	③	④	⑤
26	多种文字资料（单词卡、韩文或拼音字母卡、键盘）	①	②	③	④	⑤
在家庭中子女做下面的活动有多频繁						
27	在家庭中子女自己读书	①	②	③	④	⑤

28	在家庭中子女看父母用词典、地图、百科全书、烹饪书等书籍的时候	①	②	③	④	⑤
29	在家庭中子女看父母读各种书籍的时候	①	②	③	④	⑤
30	在家庭中子女看父母写字的样子（日记、家庭账簿等）	①	②	③	④	⑤

关于父母和子女之间的家庭读写活动的情况		父母	从来没有	1~2次/周	3~4次/周	5~6次/周	每天
31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一起看书、杂志、报纸?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2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一起聊关于看的书、家人或家里发生的事?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3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一起聊关于商品目录、广告、传单、信件等文字内容?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4	父母有多频繁会教子女读一读周边环境的文字比如道路指示牌等?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5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交流一起写的文字?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6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一起阅读并讨论零食袋、食物盒上的单词和烹饪方法或药物的使用方法以及制作玩具的说明书等?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7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在邮局、商店、超市、动物园等地经常交谈所见所读的东西，并让他们写一写画一画?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38	父母和子女有多频繁会一起去图书馆或书店?	父	①	②	③	④	⑤
		母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한-중 이중언어 유아용 표현어휘력 검사지

한-중 이중언어 유아용 표현어휘력 검사지

문항 번호	목표 단어	1차 반응	2차 반응	3차반응
1	냉장고			
1	冰箱			
2	할아버지			
2	爺爺			
3	컴퓨터			
3	電腦			
4	미끄럼틀			
4	滑梯			
5	연필			
5	鉛筆			
6	앉아있다			
6	坐着			
7	이/이빨			
7	牙/牙齒			
8	고추			
8	辣椒			
9	구름			
9	云			
10	타다			
10	騎			
11	춥다/추운			
11	冷			
12	오르다/올라가다			
12	爬上/往上走			
13	싸우다			
13	爭吵/吵架/打架			
14	과자			
14	餅干			
15	바다			
15	大海			
16	시소			
16	蹺蹺板			
17	놀이터			
17	游樂場			
18	병아리			

18	小鷄			
19	칫솔			
19	牙刷			
20	주다			
20	給/送給			
21	경찰			
21	警察			
22	무겁다/무거운			
22	重，沉			
23	네모			
23	四方形/正方形			
24	넘어지다			
24	倒/摔倒			
25	버섯			
25	蘑菇			
26	목욕하다			
26	洗澡			
27	신문			
27	報紙			
28	거미줄			
28	蜘蛛网			
29	따다			
29	摘			
30	자르가/베다			
30	切/截斷			
31	운전하다			
31	駕駛/開車			
32	문/대문			
32	門/大門			
33	게			
33	螃蟹			
34	신호등			
34	交通信号灯/紅綠灯			
35	장난감			
35	玩具			
36	뚱뚱하다/뚱뚱한			
36	胖/肥胖			
37	냄새맡다			
37	聞/嗅			
38	인사하다			
38	打招呼/問好			
39	과일			
39	水果			

40	숫자			
40	數, 數字			
41	화내다/성내다			
41	發火/生气			
42	주사위			
42	骰子			
43	장화			
43	雨靴/靴子			
44	떨어지다			
44	掉下/墜落			
45	소방차			
45	消防車,救火車			
46	뿔			
46	角/鹿角/犄角			
47	똑같다/똑같은			
47	一樣/同樣			
48	북			
48	鼓			
49	기어가다			
49	爬			
50	바람개비			
50	風車			
51	연			
51	風箏			
52	촛불			
52	蜡燭			
53	바이올린			
53	小提琴			
54	택시			
54	出租車			
55	잡다			
55	抓/抓到			
56	뾰족하다/뾰족한			
56	尖			
57	연기			
57	烟			
58	우체국			
58	郵局			
59	부러지다			
59	折斷			
60	화분			
60	花盆			
61	스케이트			

61	滑冰鞋			
62	흘리다/쏟다/엎지르다			
62	洒/流出			
63	놀랍다/놀라운			
63	惊訝			
64	바느질하다/궤매다			
64	做針線活			
65	낚시하다			
65	釣魚			
66	배달하다			
66	送外賣			
67	누르다			
67	按/壓			
68	배부르다/배부른			
68	吃飽/肚子撑			
69	굴뚝			
69	烟筒/烟囱			
70	은행잎			
70	銀杏叶			
71	선인장			
71	仙人掌			
72	폭포			
72	瀑布			
73	부딪히다			
73	撞/磕碰			
74	백조			
74	天鵝			
75	단풍잎			
75	楓叶			
76	쓰다듬다			
76	撫摸/輕撫/安撫			
77	어부			
77	漁夫/漁民			
78	그릇			
78	碗			
79	바쁘다/바쁜			
79	忙			
80	전쟁			
80	戰爭			
81	줄기			
81	莖/干			
82	분수대/분수			
82	噴泉			

83	짧다/짧은			
83	短			
84	천정			
84	棚頂			
85	운동회			
85	運動會			
86	조종사			
86	飛行員/駕駛員			
87	낭떠러지/절벽			
87	懸崖/峭壁			
88	공항			
88	机場			
89	무대			
89	舞台			
90	이슬			
90	露珠			

<부록 4>: 연구 대상 유아 한국어-중국어 인지 분포

연구 대상 유아 한국어-중국어 인지 분포

단어 번호	단어	한국어		중국어	
		빈도 (n)	백분율 (%)	빈도 (n)	백분율 (%)
1	냉장고 (冰箱)	62	49.2	126	100.0
2	할아버지 (爺爺)	118	93.7	125	99.2
3	컴퓨터 (電腦)	44	34.9	125	99.2
4	미끄럼틀 (滑梯)	38	30.2	124	98.4
5	연필 (鉛筆)	106	84.1	124	98.4
6	앉아있다 (坐下)	102	81.0	124	98.4
7	이/이빨 (牙/牙齒)	105	83.3	121	96.0
8	고추 (辣椒)	69	54.8	120	95.2
9	구름 (云)	85	67.5	120	95.2
10	타다 (騎)	59	46.8	119	94.4
11	춥다/추운 (冷)	102	81.0	117	92.9
12	오르다/올라가다(上)	68	54.0	113	89.7
13	싸우다 (吵架)	76	60.3	111	88.1
14	과자 (餅干)	111	88.1	111	88.1
15	바다 (大海)	79	62.7	110	87.3
16	시소 (蹺蹺板)	68	54.0	108	85.7
17	놀이터 (游樂場)	74	58.7	108	85.7
18	병아리 (小鷄)	65	51.6	102	81.0
19	칫솔 (牙刷)	48	38.1	101	80.2
20	주다 (給)	110	87.3	100	79.4
21	경찰 (警察)	122	96.8	95	75.4
22	무겁다/무거운 (重)	82	65.1	95	75.4
23	네모 (正方形)	54	42.9	93	73.8
24	넘어지다(摔倒)	90	71.4	92	73.0
25	버섯 (蘑菇)	66	52.4	92	73.0

26	목욕하다 (洗澡)	88	69.8	91	72.2
27	신문 (報紙)	66	52.4	90	71.4
28	거미줄 (蜘蛛网)	32	25.4	88	69.8
29	따다 (摘)	53	42.1	88	69.8
30	자르다/베다 (切斷)	62	49.2	86	68.3
31	운전하다(開車)	60	47.6	85	67.5
32	문/대문 (大門)	111	88.1	83	65.9
33	게 (螃蟹)	48	38.1	81	64.3
34	신호등 (信号灯)	89	70.6	81	64.3
35	장난감 (玩具)	63	50.0	77	61.1
36	뚱뚱하다/뚱뚱한 胖	86	68.3	71	56.3
37	냄새맡다 (聞)	42	33.3	70	55.6
38	인사하다 (問好)	58	46.0	69	54.8
39	과일 (水果)	83	65.9	69	54.8
40	숫자 (數字)	76	60.3	69	54.8
41	화내다/성내다 (生气)	49	38.9	66	52.4
42	주사위 (骰子)	8	6.3	60	47.6
43	장화 (雨靴)	18	14.3	55	43.7
44	떨어지다 (墜落)	52	41.3	52	41.3
45	소방차 (消防車)	68	54.0	50	39.7
46	뿔 (角)	0	0.0	49	38.9
47	똑같다/똑같은 (一樣)	31	24.6	43	34.1
48	북 (鼓)	11	8.7	37	29.4
49	기어가다 (爬)	2	1.6	33	26.2
50	바람개비 (風車)	0	0.0	22	17.5
51	연 (風筝)	3	2.4	15	11.9
52	촛불 (蜡燭)	4	3.2	14	11.1
53	바이올린 (小提琴)	1	0.8	8	6.3
54	택시 (出租車)	2	1.6	5	4.0
55	잡다 (抓)	2	1.6	2	1.6
56	뾰족하다/뾰족한 尖	0	0.0	2	1.6

57	연기（烟）	0	0.0	1	0.8
58	우체국（郵局）	0	0.0	0	0.0
59	부러지다（折斷）	0	0.0	0	0.0
60	화분（花盆）	0	0.0	0	0.0
61	스케이트（滑冰鞋）	0	0.0	0	0.0
62	흘리다/쏟다/엎지르다（洒）	0	0.0	0	0.0
63	놀랍다/놀라운（惊訝）	0	0.0	0	0.0
64	바느질하다/꿰매다（做針線活）	0	0.0	0	0.0
65	낚시하다（釣魚）	0	0.0	0	0.0
66	배달하다（送外賣）	0	0.0	0	0.0
67	누르다（按、壓）	0	0.0	0	0.0
68	배부르다/배부른（吃飽）	0	0.0	0	0.0
69	굴뚝（烟筒）	0	0.0	0	0.0
70	은행잎（銀杏叶）	0	0.0	0	0.0
71	선인장（仙人掌）	0	0.0	0	0.0
72	폭포（瀑布）	0	0.0	0	0.0
73	부딪히다（撞）	0	0.0	0	0.0
74	백조（天鵝）	0	0.0	0	0.0
75	단풍잎（楓叶）	0	0.0	0	0.0
76	쓰다듬다（撫摸）	0	0.0	0	0.0
77	어부（漁夫）	0	0.0	0	0.0
78	그릇（碗）	0	0.0	0	0.0
79	바쁘다/바쁜（忙）	0	0.0	0	0.0
80	전쟁（戰爭）	0	0.0	0	0.0
81	줄기（莖、干）	0	0.0	0	0.0
82	분수대/분수（噴泉）	0	0.0	0	0.0
83	짧다/짧은（短）	0	0.0	0	0.0
84	천정（棚頂）	0	0.0	0	0.0
85	운동회（運動會）	0	0.0	0	0.0

86	조종사（飛行員）	0	0.0	0	0.0
87	낭떠러지/절벽 (懸崖、峭壁)	0	0.0	0	0.0
88	공항（机場）	0	0.0	0	0.0
89	무대（舞台）	0	0.0	0	0.0
90	이슬（露珠）	0	0.0	0	0.0

Abstract

The factors influencing bilingual language use and home literacy environment for parents of Chinese-Korean families on 3-year-old Children's ability of expressive vocabulary

MEIYAN, GUO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is a multi-ethnic country composed of 56 ethnic groups centered on Han Chinese and is a typical multi-cultural country. Each ethnic group has its cultural tradition and personality and has consolidated cultural diversity through different ethnic groups, languages, religions, and production method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Korean-Chinese families among minority ethnic groups as a simultaneous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 to learn Korean and Chine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udy in detail how the aspects of simultaneous bilingual environment encountered by young children bring about their expressive vocabula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anguage use characteristics and literacy environment of parents of Korean-Chinese families on children's bilingual (Korean-Chinese) expressive vocabulary in Tumen City and Meihekou City, Jilin Province, China.

Three-years-old infants who are relatively easy to observe and measure expression words and have little impact on institutional education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irst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pressive vocabulary of Korean-Chinese children of simultaneous bilingual children and compared the list of words that they could express in Korean, Chinese, and bilingual. Secondly, it was analyzed whether the bilingual use of Korean-Chinese family parents and the literacy environment correlated with the bilingual (Korean-Chinese) expression vocabulary of children. Thir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bilingual language by parents of Korean-Chinese families and fourthly, Korean-Chinese families' literacy environment influenced the bilingual (Korean-Chinese) expression vocabulary of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expressive vocabulary of children who are bilingual simultaneously between Korea and China was found to have a higher level of expressive vocabulary in Chinese rather in Korean. For both these two languages, the equivalent age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actual period of the month. Comparing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each test question, it was found that while infants could express more in Chinese, the possibility of speaking Korean-Chinese words was complementary.

Secondly, the more parents used Chinese at home, the lower the level of expressive vocabulary in Korea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bilingual expressive vocabulary in Chinese. Family literacy activities had a high level

of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young children's Chinese vocabulary expression.

Thirdly, Korean-Chinese parents spoke Chinese much more at home, and Korean-Chinese bilingualism spoken was relatively rare. The language use between parents is highly correlated, so there are few cases with each language used separately, and most of them used the same language. Compared with the father, the mother's bilingual use styl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fant's Korean expressive vocabulary. The infant's Korean expression vocabulary was higher in the home as the mother mainly spoke Korean than the mother mainly spoke Chinese. When both fathers and mothers mainly spoke Chinese or at least two languages evenly, infants' Chinese expression vocabulary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

Fourthly,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of home literacy activities on children's bilingual expressive vocabulary, children's Korean expressive graphic vocabulary level increased as more literacy data were provided at home. The order of literacy activity frequency, literacy data availability, and mother's literacy activity instruction influenced young children's Chinese expression vocabulary.

Research on bilingualism for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in a bilingual environment was studied mainl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Genesee et al., 2004; Hammer et al., 2014; Meisel, 2006). On the other hand, studie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bilingual children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ed that parents' use of bilingual language and family literacy environmen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n expressive vocabulary of children who are already three-year-old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clearly confirms the meaning of the degree of exposure of two languages through parents in a simultaneous bilingual environment. Furthermore, by showing that various elements of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re related to

bilingual development in terms of vocabulary,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the home environment for children who acquire bilingualism.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distinguish bilingual languages while investigating the literacy data in the home, literacy activities, and guidance of parents' literacy activities, which compose the literacy environment of Korean-Chinese families. More precise results can be obtained in subsequent studies if these variables are investigated by dividing them into Korean and Chinese-related environments.

keywords: Korean-Chinese Family, Expressive vacabulary, Simultaneous bilinguals, Parents bilingualism using, Home literacy environment

Student Number: 2017-23539